교 가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

慶南中高同窓會報

발행·편집인 김대욱
편 집 주 간 김종명
발 행 처
경남중고등학교 총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18(부평동4가)
경남중·고 총동창회관 5층
Tel.(051)253-7788 Fax.(051)255-7787
제작·인쇄 동아P&P Tel.(051)807-0600

1968년 6월 1일 창간 | www.kyungnam.or.kr | 제435호 - 2021년 6월 8일 발행

"모교 개교 80주년 앞서 동문 대화합 길 열자"

재도약 위해 한마음 단결 절실… 더 많은 동문 참여를
스스로 '벽' 쌓은 몇몇 동기회, 응어리 풀 기회 찾아야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 취임 이후 지난 4개월여 동안 총동창회는 꾸준히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다양한 형식의 만남과 모임이 진행됐다. 김 총동창회장의 고액 기부 약정도 있었다. 여기에 괴문서·괴밴드 소동, 회원자격 상실이란 흑역사의 기록도 남겼다. 또한 오는 2022년 4월 30일 모교 개교 80주년 기념일에 갓 찍어낸 모교80년사를 펼쳐볼 '대망(大望)'도 갖게 되었다.

미증유의 세기사적 사건이라 할 코로나19사태 속에서도 경남중고 총동창회 역사는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역사를 풀어놓으면 빛나는 긴 강이 된다. 찬란한 대하(大河)이다. 그 속에 경남중고인(人)의 정신과 전통이 녹아 도도히 흐른다.

모교 개교 80주년은 곧바로 개교 100주년을 카운트다운하는 시점을 말한다. 이는 지금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도약은 우리 스스로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진단과 평가, 그리고 개혁이 있어야 가능하다.

무엇보다 우리는 80년, 100년의 역사 무대에서 얼마나 되는 동문들이 활동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들만의 무대'가 되어선 안 된다는 뜻이다. 보다 더 많은 동문이 동창회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6만여 졸업생 가운데 경남중·고 동시 졸업자, 사망자 등을 고려하면 생존 동문은 4만5천명선으로 추정한다. 이중에서 어떤 형태로든 동창회와 '끈'이 닿는 동문은 9,000명으로 조사됐다(동창회보 제430호·2020년 8월 10일 발간). 전체 졸업생 중 겨우 20%이다.

이 20%의 수치도 잘 들여다봐야 한다. 지난해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자가 3,115명에 그쳤다. 올해는 5월말 현재 1,775명이다.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가 동문애의 바로미터는 아닐지라도 객관적 증빙자료로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3,115명은 9,000명의 35%가 채 못 된다. 적어도 절반 수준은 되어야 동문으로서의 의무를 논할 수 있겠다.

모교 개교 80주년을 재도약의 기점으로 삼기 위해선 인적 자산을 최대한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 사회각계각층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도 동창회와 인연을 맺지 못한 인물들, 마음은 있어도 인연이 없어 숨어지낸 동문들, 과거 활동하다 등 돌린 친구들 등을 찾아내 함께 가야 한다. 동창회의 새로운 지평을 위해선 이 작업이 중요하다. 각 기수별 동기회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그 친구 찾아 함께 가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다음은 동창회에 연이 닿아 있어도 역사의 흐름에 합류하지 않는 동문도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정당성과 합리성은 차치하고, 동기회장이 총동창회 회원자격 상실인 경우, 총동창회 불참 결의 동기회, 아예 총동창회에 발을 올려놓지도 않은 기수 등을 말한다. 물론 이들이 없어 역사의 맥이 끊어지지는 않는다. 작은 흠결이 될 뿐이다. 80년 역사의 완성을 두고 이 작은 흠결도 치유하여 함께 가는 게 온당한 일이다.

역사는 기록의 소산이다. 기록이, 흔적이, 자취가 없으면 역사 속으로 사라져 잊혀지고 만다. 역사의 기록에서 누락되지 않기 위해서는 역사의 강줄기에 합류해야 한다. 물론 총동창회는 대화합과 대동단결의 문을 언제나 열어두고 있다. 〈기사 2면에 넘김〉

55회 동기회 창립총회 55회 동기회 창립총회가 지난 5월 21일 총동창회관 강당에서 열렸다. 55회 동기생들과 축하객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총동창회관은 경남중고인의 자랑"

개관 1주년 맞아 '존재의 의미' 부각

기념행사는 갖지 않아

경남중고 총동창회관이 개관 한 돌을 앞두고 있다. 오는 6월 20일이 첫 생일이다. 개관 이후 많은 동문들이 회관을 찾아와 지신밟기 하듯 자신의 족적을 남겼다. 물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슴 한편에는 '총동창회관=경남중고인의 자긍심'이라는 정서가 자리잡았다. 총동창회관이 동문들의 '자랑'이었다는 말이다.

총동창회관 개관 1년의 성과를 짚어보면, 회관 보유가 성공적 사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안정적인 모교지원 재원 마련과 동문들의 '보금자리' 역할이라는 회관 보유의 두 가지 큰 목적에 부합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5월 13일 용마장학회 이사회에서 보고된 회관 임대 현황은 전세보증금 2억5,800만원에 월세 705만원의 수입으로 나타났다. 모교 장학금 지출이 대부분이라 세 부담도 거의 없을 것이라 한다. 예년 평균 모교지원액이 5,000만~7,000만원대여서 현재 회관 임대 수입만으로도 충당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월세도 코로나시국을 고려한 것이라, 좋은 시절이 오면 더 많은 수입이 예상된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동문들의 발걸음도 폭발적이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 역시 코로나시국에 가능한 한 참여 인원을 축소하는 등 모임을 소극적으로 가진 점을 감안할 때 결코 적지 않은 성과로 분석된다.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집단면역이 형성돼 행사 참여 인원제한이 풀린다면, 폭발적인 동문방문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와중에 각종 동문 행사가 '작은 모임'이지만 연이어 총동창회관에서 치러졌다는 사실을 주목한다는 말이 동문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다. 만약에 총동창회관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이 같은 '작은 모임'조차도 가질 수 없었지 않느냐는 말이다. 이 '위기의 시대'에 총동창회관이 동문간 소통과 교류, 우정나눔의 산실 역할을 했다는 의미이다.

총동창회와 용마장학회는 공식적인 총동창회관 개관 1주년 기념행사는 갖지 않을 예정이다. 코로나 시국이라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은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총동창회는 개관1주년을 맞아 총동창회관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를 부탁합니다. 부산은행 101-2074-0332-05 예금주 경남중고총동창회 김대욱

총동창회 소식

지구동창회 격려와 결속 이어지다

김 총동창회장, 부산진·연제, 동래·금정, 해운대지구와 만나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의 지구동창회 집행부와의 만남이 이어졌다. 강서, 중부산, 사하지구동창회와의 상견례 이후 부산진·연제와 동래·금정, 해운대지구동창회와의 회동이 진행됐다. 남부산지구와의 만남은 현지 사정으로 일정이 연기됐다.

김 총동창회장은 각 지구동창회의 회동에서 "취임한 지 벌써 3개월이 되었다. 박종찬(25회) 전임 총동창회장이 뿌려놓은 씨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도록 잘 가꾸어 나가자"면서 동문들의 단합과 협조를 요청했다. 총동창회는 각 지구동창회에 지원금 50만원씩을 각각 전달했다.

김대욱 총동창회장이 정용운(32회) 동래·금정지구 회장에게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부산진·연제지구동창회는 지난 4월 21일 오후 총동창회관에서 집행부 모임을 가졌다. 이날 이윤조(33회) 부산진·연제지구 회장은 "코로나19사태로 지구동창회 활동이 미미하다.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적극적인 모임을 가질 계획이다. 지구동창회가 총동창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동창회장은 이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에서 잘 걸을 수 있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 생각한다"며 코로나19사태의 종식과 동문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박 종동창회 고문은 이 자리서 "종동창회관이 있어서 이 시기에 이 같은 모임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총동창회관의 효용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 비용은 최웅남(33회) 동문이 찬조했다.

○…동래·금정지구동창회는 지난 4월 26일 오후 덕계 소재 중식당 금천에서 집행부 모임을 열었다. 코로나19사태 발발 이후 처음 갖는 미니행사였다. 정용운(32회) 동래·금정지구 회장은 이날 "코로나19사태로 그동안 모임을 자제해 왔다. 사태 극복 시점을 기해 활동을 열심히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총동창회가 바라는 모습의 지구동창회를 만들어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총동창회장은 "제가 총동창회의 얼굴인 만큼 동문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노력하겠다. 시간이 나는 대로 각종 모임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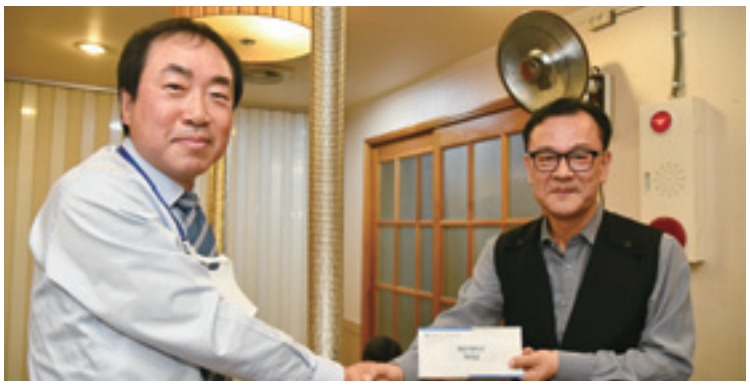
○…해운대지구동창회는 지난 4월 28일 오후 해운대 전통시장 입구 예담숯불양갈비 식당(38회 김근홍 동문 운영)에서 집행부 모임을 가졌다. 이날 정윤희(36회) 해운대지구 회장은 "지난해 12월 말 50인 미만 모임 행사가 가능한 날 가졌던 송년회의 기억이 새롭다. 그동안 모임을 못 가져 답답한 심경이지만, 다시 많은 동문들과 함께 자리할 날이 곧 오길 기원한다"면서 해운대지구와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한 '파이팅'을 외쳤다.

김 총동창회장은 "집이 해운대이니 가능한 한 모임에 참석하겠다"면서 "코로나19가 문제다. 사람은 만나서 얼굴 보고, 손도 마주쳐야 없던 정도 생기는 법이다. 동문들끼리 가능하면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 자리서 고(故) 남진현(19회) 총동창회관장(해운대지구 고문)에 대한 회고의 시간이 있었다. 함께한 동문 이구동성으로 "고인의 빈자리가 너무 크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날 해운대지구동창회 고문이기도 한 박 총동창회 고문은 격려금 20만원을 전달했다. 박종기(28회) 해운대지구 자문위원은 금일봉을 내놓았다.

김대욱 총동창회장이 이윤조(33회) 부산진·연제지구 회장에게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김대욱 총동창회장이 정윤희(36회) 해운대지구 회장에게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첫 운영위원회 "수시로 모임, 현안 논의"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 취임 이후 첫 운영위부회장단회의(운영위원회)가 지난 5월 24일 오후 총동창회관 5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운영위원회는 김 총동창회장과 동기생인 29회 동문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는 7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김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취임한 지 넉 달이 다 돼 간다. 숨가쁘게 지나왔다. 총동창회는 잘 운영되고 있다.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박종찬(25회) 전임 총동창회장이 동문회 (침체)분위기를 바꿔놓았다. 30~50대 기수까지 많은 동문들이 깊은 관심을 보이며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분위기를 더욱 진작시키고 토대를 튼튼히 하여 차기에 누가 맡더라도 별 무리 없이 총동창회가 굴러가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24일 오후 총동창회관 5층 회의실에서 열린 총동창회 운영위부회장단회의(운영위원회) 모습.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이 자리서 현응열(29회) 사무총장이 업무보고(3면 기별회장단 모임 보고 내용 참조)를 했다.

이날 운영위원들은 자신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했다. 운영위원회는 전임 집행부에서부터 신설된 조직으로, 총동창회장 동기생으로 구성돼 있다. 총동창회장 가까이서 지원하고 자문하는 역할이 주임무이다. 이 자리서 운영위원회는 향후 현안 논의 필요 시 수시로 모임을 갖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29회 동기회 문제를 두고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29회는 이날 현재 동기회 차원에서 총동창회 활동 참여 거부, 각종 분담금 납부 거부 등을 시행하고 있다. 동기생인 박성철 동문의 '총동창회장 선출 불신임' 사건이 동기회 사건으로 비화된 것이다. 이렇다보니 모교80년사에 수록할 동기회 역사 기술 작업, 제작 중인 2021년 총동창회 인명부 내 동기 주소록 확인 작업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모임에서는 29회 동기회 집행부에 총동창회와 연관된 각종 현안들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키로 했다.

〈기사 1면에서 받음〉

앞서 언급한 동기회는 역사의 무대로 돌아와야 한다.

80년사 편집위원들은 자료수집 과정에서 많은 동문의 개인적 흑역사도 듣고 있다. '역사의 심판'이 따로 없다. 역사는 냉정하다. 대다수 기수가 정상적인 활동으로 총동창회에 기여하고 있다. 걸림돌이 있으면 냉철히 진단하고, 응어리를 치유할 기회를 찾아야 한다.

모교 개교 80주년을 맞으며, 100주년을 준비하는 길에 더 많은 동문이 함께 손을 잡고 나가는 날을 기대해 본다. 총동창회는 말한다. "나를 불러 손잡게 하라."

기별 동기회장단, 총동창회 건강성 담보하다

홀짝수 기수 나눠 두 차례 회의…"동창회 발전에 힘 보탤 것"
김대욱 총동창회장 "열린 동창회, 마음 가는 동창회 조성 노력"

경남중고 총동창회 기별 동기회장 상견례가 지난 5월 12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총동창회관 6층 강당에서 열렸다. 김대욱(29회) 신임 총동창회장이 주재하는 각 기별 대표자들 간 만남의 자리였다. 기별 동기회장단이 총동창회 조직의 골격인 만큼 이날 모임은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

이 자리서 김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동기회장이란 자리는 동기회의 얼굴이다. 동기회 활동의 방향 설정 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동기회장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코로나19사태에 동기회 활동이 침체되어 있다. 이런 저런 모임을 기획하여 '총동창회의 존재'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 총동창회장은 취임하면서 2가지의 큰 원칙을 세웠다면서 이를 소개했다. 첫 번째는 열린 동창회, 투명한 동창회 운영이다. 김 총동창회장은 "동문들이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보면서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집행부에 전해달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마음이 가는 동창회 조성이다. 김 총동창회장은 "박종찬(25회) 전임 총동창회장의 노력으로 후배들의 기(氣)가 용솟음치고 있음을 느낀다. 재임기간 이를 더욱 북돋우고, 반석 위에 올라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양일에 걸쳐 현응열(29회) 사무총장의 업무보고가 있었다. 먼저 현 집행부 출범 이후 각종 행사보고가 있었다. 지구동창회와 직능 및 동호회 단체 모임 참가를 비롯, 모교 방문 및 지원 활동 등이 보고됐다.

향후 주요일정 소개도 있었다. △제52회 기별야구대회=코로나19 방역 추세에 따라 결정 △제24회 용마골프대회=10월 경 개최 예정. 장소와 운영방식은 추후 결정 △2021년 용마의 밤=12월 9일(목) 오후 7시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 예약 △제5회 동기회 졸업 70주년 홈커밍데이 행사=코로나19사태로 가을 개최 고려 중. 행사 개최가 여의치 않을 경우 총동창회서 식사자리 마련하고 선물 증정 고려 △제55회 동기회 창립총회=5월 21일 오후 총동창회관 6층 대강당.

이 자리서 기별분담금 및 야구후원금 납부 현황이 보고됐다. 18회부터 54회까지 총 37기수 중 54%인 20개 기수가 납부했다(5월 20일 현재). 동기회 활동이 위축돼 있어 납부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 실적은 목표치 4천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율이 총동창회의 상징적 파워임을 감안할 때 더욱 분발해야 할 요소로 지적되었다.

이 자리서 모교사랑 기금 조성 계획안이 나왔다. 3가지의 사업이 보고됐다. △모교 재학생 학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 기금 △경남고 교내 이태석 신부 기념공원 조성 기금 △덕형관(원형복원 이후) 내 모교 역사관 건립 기금 등이다. 이와 관련, 김 총동창회장은 "모교 재학생 학력 증진은 선배가 후배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여이다. 좋은 대학, 좋은 학과에 진학 할 수 있도록 밀어주자"면서 모금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모금운동은 기부금 영수증 처리가 가능한 기부금 지정단체 지정 이후인 7월께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어 박종기(28회 동기회장) 80년사 편집위원이 80년사 편찬 작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각 동기회사(史) 원고 자료 제출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현재 약50%의 제출률이다. 80년사는 내년 4월 20일 발간을 목표로 하고, 현재 집필 작업은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창회보 편집위원으로도 활약 중인 박 80년사편집위원은 "모교를 위해 여생을 바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동창회 역사를 기록하다 보니 여유 있는 동문들의 기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힘닿는 데까지 돕겠다. 김 총동창회장이 제안한 3가지 사업이 성공하길 기원하고 적극 참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4면에 넘김〉

지난 5월 12일(사진 위)과 20일 양일 총동창회 기별 동기회장 상견례가 총동창회관 강당에서 열렸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양수성(46회) 동문, 80년사 귀한 사진 기증

6·25 직후 김계곤 은사 재직 시 앨범 3권 구입
별 손상 없는 225장 담겨… 편찬 작업에 도움

경남중고 80년사 편찬작업에 도움이 될 귀중한 사진 자료가 확보됐다. 부산 수영구에서 고서점(古書店)을 경영하는 양수성(46회) 동문이 한국전쟁 직후부터 8년간 경남고 국어교사로 근무했던 김계곤(金桂坤) 은사의 재직시절 앨범 3권을 입수, 지난 5월 22일 편찬위원회에 기증해왔다.

모교80년사 편찬작업에 모교 초창기 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양 대표는 '뭔가 기여하자'는 의도에서 전국 골동품점 네트워크를 통해 경남중고와 관련된 자료를 수개월째 찾아왔다. 양 동문은 지난 4월 서울의 옛 서적 취급점이 김 은사의 앨범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 양 동문은 곧장 서울로 가 앨범의 상태를 확인했다. 권당 50만원, 3권 150만원이란 예상외의 고가임에도 선선히 구입하고 기증 의향을 전했다.

이 앨범에는 김 은사가 경남고에 부임했던 1953년부터 보성고로 전근 갔던 1961년까지 8년 동안의 학교 행사, 학생들과의 특별활동, 덕형관 건설, 당시 교정(校庭)의 모습 등 225장의 귀중한 사진이 큰 손상 없이 보관되어 있어 모교사 편찬과 덕형관 역사관 조성사업에 크게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

앨범을 기증받은 박종찬(25회) 모교80년사 편찬위원장은 "젊은 후배동문들이 동창회 활동에 본격 뛰어들면서 그런 적극적인 관심이 실천적으로 표출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양 동문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양 동문은 "선배님들의 노고를 보면서 나도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의무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양수성(46회) 동문이 자신이 구한 역사 자료를 박종찬(25회) 모교80년사편찬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원내는 김계곤 은사의 생전 모습.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이에 앞서 양 동문은 지난해 12월, 1955년에 발행됐던 교내 신문 「경고학보」와 1966년판 교내 문집인 「쌍백선」 3권을 찾아내서 편찬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이번에 찾은 앨범은 김 은사 타계 후 유품이 버려지는 과정에서 폐지 수집업자가 이를 습득·분류하여 골동품 상점으로 유통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한글맞춤법의 대가'인 김 은사는 1967년부터 1991년까지 인천교육대학 교수로 재직했다. 이후 한글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1926년 경북 청도에서 출생하여 부산대 국어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언어학을 전공했으며 동아대 명예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4년 2월 별세. 모교에서 국어 수업을 받았던 김형석(16회) 80년사편집위원장은 "차분하고 따뜻한 인품의 스승"이라고 회고했다.

〈글=박종기(28회) 편집위원〉

용마장학회 이사진 대폭 교체 예고

이용흠 이사장 "실제로 일할 동문으로 선임" 밝혀

공석 감사에 이재호(21회), 이사에 옥동훈(25회) 동문 선임
상임이사 이병찬(23회) 이사, 신임 간사 석희원(30회) 동문

(재)용마장학회가 이사진의 대폭적인 인적 변화를 예고했다. 지난 5월 13일 해운대 더베이101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나온 이야기이다. 용마장학회 이용흠(19회) 이사장은 이날 "그동안 장학회 이사는 기부를 많이 한 동문이거나 역대 총동창회장들이 선임되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제하고 "이번 이사진의 임기는 11월 14일 만료된다. 이 사안은 추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는 고(故) 남진현(19회) 상임이사의 별세와 김태우(27회) 감사의 사의에 따른 공석 이사 및 감사 선임, 상임이사 및 간사 선임이 안건이었다.

신임 감사에는 이재호(21회·변호사) 동문이, 신임 이사에는 옥동훈(25회) 전 용마장학회 간사가 각각 선임됐다. 상임이사에는 이병찬(23회·총동창회 고문) 이사, 신임 간사에는 석희원(30회·전 부산대총동창회 사무총장) 동문이 선출됐다.

이 신임 감사는 "맡은 임무에 열심히 하고,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옥 신임 이사는 "아는 만큼 힘껏 돕겠다"고 밝혔다.

상임이사 선임 건에서 이 이사장은 이 이사를 의결을 거쳐 임명했다. 상임이사는 정관에 규정된 사업을 전담하는 자리이다. 이 이사장은 "용마장학회 이사장 자리는 총동창회장이 순서대로 맡는 게 전통이다. 실질적 임무 수행을 고려해 차기 이사장직은 이병찬 이사가 별 유고사항이 없으면 맡아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상임이사직을 요청해 수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신임 상임이사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챙겨 장학회 운영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하겠다. 이사장을 보필하고 간사를 지휘하여 업무가 잘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석 신임 간사는 부산대 총동창회 사무총장을 14년간이나 수행한, 관련 분야의 베테랑으로 이 이사장의 신임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석 신임 간사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공석인 총동창회관장은 선임하지 않고, 상임이사가 총동창회관을 전담하는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실무는 상임이사가, 책임은 이사장이 지는 형식이다. 타 고교의 경우 동창회관장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의 모교 재학생 학력신장을 위한 4억4천만원 기부 약정과 관련, 6월말께 지정기부단체 확정 절차가 끝나는 대로 입금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용마장학회 기금 및 자금과 회관 임대 현황 등의 보고가 있었다. 매월 705만원의 월세 수익(연 8,460만원)을 확인했다. 예년의 평균 모교 지원액을 고려, 현 회관 수익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부 활성화를 통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모교 지원 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장학회의 과제로 삼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 이사장은 이사회 개회 인사말에서 "남 상임이사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빈다"고 말하고, 남 상임이사의 공로패를 제작해 유족에게 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서 간사를 역임한 옥 이사에 대한 공로패 전달이 있었다.

이날 참석자는 이 이사장, 이 상임이사, 장혁표(8회·전 부산대 총장) 이사, 옥 이사, 이 신임 감사, 서민석(30회·세무사) 감사, 석 신임 간사이다.

지난 5월 13일 열린 용마장학회 이사회 모습.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경남중 운영위원들이 지난 5월 7일 오후 총동창회관을 방문했다. 〈사진=윤 원 욱 (39회) 영상편집위원〉

"실내야구연습장 증축 예산지원을"

경남중 운영위원회, 김대욱 총동창회장 면담

경남중 운영위원회 강은아 회장을 비롯한 위원 일행이 지난 5월 7일 오후 총동창회관을 방문,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을 면담했다. 강 운영위원회 회장은 이 자리서 지난해를 비롯, 그동안 총동창회가 지속적으로 경남중을 지원해 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김 총동창회장은 "지난해는 유독 총동창회에서 많은 지원을 했다. 올해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남중 운영위원회는 학교 측의 '실내야구연습장 증축 계획안'을 제시하고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재 경남중 야구부는 실내야구부 연습장이 없어 우천 시 제대로 된 연습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선수들이 훈련 후 휴식할 공간이 없고, 개인별 락커도 부족해 동료들과 함께 사용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획도면까지 첨부된 증축안에 따르면 총예산이 9천만원 정도 소요되며, 공간 확보를 위해 2층까지 올릴 경우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해 보인다.

김 총동창회장은 "학교 측 요청을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으나, 적지 않은 예산이라 검토는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박근태(39회) 동문, 경남고 학교운영위원장에

안병규(44회) 동문, 위원 선임

박근태(39회), 안병규(44회) 두 동문이 경남고 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으로 선임됐다. 지난 5월 4일(화) 오후 경남고 회의실에서 제144회 학교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운영위원 결원과 신임 교장 부임에 따른 보궐 선출이 있었다. 총 12명의 학교운영위원 중 지역위원 3명과 학부모위원 2명이 선출되었다. 부산대 교수인 박 동문은 이 자리서 학교운영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이날 학교운영위원회는 2021학년도 경남고등학교 교육계획서(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박근태(39회) 동문

안병규(44회) 동문

〈기사 3면에서 받음〉

이 자리서 임민호 24회 동기회장은 "김 총동창회장의 모교 학력 향상 프로그램에 경의를 표한다. 경남중고의 제2의 역사를 쓰는 일이다. 동기들과 논의하여 김 총동창회장의 열정에 보답하겠다. 다들 같은 마음이라 생각한다. 좋은 결과를 기다린다"고 격려했다.

최재혁(승호) 36회 동기회장은 "김 총동창회장의 3가지 사업 제안에서 자신감을 읽을 수 있다. 적극 추진해 달라. 동기들과 숙의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양일간의 기별 동기회장 상견례에는 16회부터 55회까지 총 40개 기수의 회장(대리 참석도 가능)이 초대되었다. 16회 이전 기수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초청에서 제외했다. 12일(짝수 중심)에는 12명의 회장이, 20일(홀수 중심)에는 13명의 회장 및 대리인이 참석했다. 전체 참석률이 62.5%를 보였다.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를 감안하면 선방했다는 평가이다. 코로나19로 모임 자체가 힘든데다 새 집행부가 들어서기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 각 동기회마다 다소 활력 저하가 불가피한 국면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소통력 제고가 최선이다. 각 기수 동기회장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총동창회 직능단체 다양화와 내실화 필요”

젊은 경제인들의 모임 및 전문직군 모임 구축 절실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이 취임 후 지구동창회를 비롯, 기별동기회와 일부 동호회 및 직능단체 회장단과의 상견례를 겸한 현안 보고회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총동창회 산하 직능단체의 비(非)다양성과 일부 이름뿐인 숙면상태의 단체, 그리고 전문직군의 단체 결성 저조 등이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이 같은 문제들이 코로나19사태가 가져온 ‘비대면 사회’ 확산이라는 시대조류와 부합해, 만나서 소통하고 우정을 나누는 동문회 조직의 응집력과 활성화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허약한 조직은 세대교체를 통한 기(氣) 불어넣기 등 내실화가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동문회 조직의 외연을 확장하는 게 바람직하다.

현재 총동창회 조직표(동창회보 제434호 12~13면 게재)상으로는 직능회 9개가 등록돼 있다. 경미회, 경야회, 덕경회, 등대회, 용마언론인클럽, 용건회, 용경회, 용마세우회, 용마회(부산시청 공무원) 등이다.

이 중 절반가량은 송년회나 신년회 등 1회성 연중행사만 갖거나 소통이 안 돼 근황이 알려지지 않은 조직이다. 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전체 조직의 건강성을 위해 보다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중 덕경회가 주목을 받는다. 참가자의 ‘무게감’으로 기대가 컸던 덕경회는 매년 신년회를 개최해 왔지만, 최근 2년은 코로나19 탓에 활동이 정지된 상태에 놓였다. 덕경회는 지역 경제인 동문모임으로 참가자 상당수가 고참 기수인 실정이며, 젊은 경제인 동문들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게다가 정·관계 및 언론계 인사들까지 초청한 신년회를 이어오며 별다른 활동이 없다 보니 조직이 정체됐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 기존의 덕경회는 원로급 경제인들의 모임으로 존속하고, 중견 및 신진 경제인들을 규합한 새로운 경제인 모임을 출범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정보교환과 인적 네트워크가 가장 필요한 젊은 경제인들의 모임이 활성화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만큼 동문회의 ‘파워’ 형성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좀 더 깊게 들여다보자. 31회부터 올해 동기회 창립총회를 갖는 55회까지 모두 25개 기수에서 경제인 3~4명씩만 참가해도 구성원 75~100명의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다. 31회 이전 기수도 계산에 넣으면 정말 거대한 조직을 엮을 수 있다. 사실상 각 기수 리더들의 모임이 된다. 막강한 맨파워로 총동창회 산하 대표적 단체의 하나가 되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여태까지 이를 방치했다는 게 의아할 정도이다. 서둘러 새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이뿐이 아니다. 교수, 의사, 약사 등 소위 전문직군도 개별 조직화가 절실하다. 지금까지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없었고, 당사자들 역시 무관심했다. 개별적으로는 동기회 활동도 하지만, 직종별로는 모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이렇다보니 총동창회 입장에서는 조직의 다양성과 총체적 역량 측면에서 약화된 느낌을 주는 것이다. 연중행사로 송년회나 신년회만을 치르는 조직이라도 존재하고, 안 하고에 따라 총동창회의 위상이 달라진다. 뜻있는 동문이 팔을 걷고 나서야 가능한 일이다. 용마언론인클럽이 재건하게 된 것은 이용흠(19회) 용마장학회 이사장이 지난 2009년 총동창회장에 선임되고 난 뒤 적극적으로 나서 이룬 결실이라는 점에서 새겨볼 만하다.

또한 보험, 여행, 요식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문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각 분야별로도 직능조직화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코로나19사태 직전 여행업계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있었다. 동종 업계의 네트워크 구축 차원에서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다.

이밖에도 총동창회의 직능단체 활성화 요소가 눈에 띈다. 현재 활성화가 돋보이는 경미회는 40대 기수 이후의 모임으로 직능단체라기보다는 특별한 기수 모임에 가깝고, 경남고 야구부 선수 출신 모임인 경야회 역시 직능이라기보다는 동호회 조직으로 분류하는 게 합리적이다. 현재 활동 중이나 총동창회 조직에 포함되지 않은 학창시절의 도서반 출신 동문회와 생물반 동문회인 생우회 등도 총동창회 조직에 포함시켜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씨줄날줄로 촘촘하게 엮고, 강건하되 유연한 네트워크 동문회 조직은 향후 비대면사회가 심화될수록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목전에 온 ‘사람이 그리운 시대’의 돌파구이다. 바로 ‘비대면사회의 역설’이다.

55회 6인 ‘결사대’, 동기회 창립총회

‘미약한 시작’이나 강한 자신감으로 당찬 출범

“비상시국에, 비장한 모임 연, 비범한 용마들이, ‘비바! 비바!’ 춤을 추다.”

지난 5월 21일 오후 총동창회관 6층 강당에서 개최된 제55회 동기회 창립총회장 모습이다. 55회 동기 6명이 ‘일당백’의 정신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동기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선배들의 격려와 지원에 고무된 이들은 이날의 감동을 평생 가슴에 담아 두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인공 55회 참석자는 단 6명이었다. 지난해 8월 개설한 동기회 밴드엔 80여명의 동기가 참여 중인데 반해 ‘6명 참석’은 의외의 결과였다. 코로나19사태가 덮친 동문사회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올해 가질 졸업 2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를 위해선 창립총회 개최가 급했다. 행사 개최 날부터 잡고 장소를 정했던 것이다. 아직 영글지 못한 동기회 결속력이라 ‘미약한 시작’이었다.

55회 동기회 창립총회에서 가진 모교배지 부착식 장면.

이날 오후 55회 6인은 난관을 뚫고 가자는 의지로 마음을 다잡았다. 초청 선배들 앞에서 ‘기죽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며 개회를 선언하고 ‘창대한 미래’를 다짐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내빈 및 참가 55회 동기생 소개, 55회 활동 소개, 55회 동기회기 전달식으로 진행됐다. 총동창회서 제작한 기를 현응열(29회) 사무총장이 55회 장지훈 초대회장에게 전달했다. 이어서 모교배지 부착식이 열렸다. 박종찬(25회) 총동창회 고문 등 참석 선배 6명이 나와 55회 6명에게 황금빛 배지를 가슴에 달아주었다.

장 회장은 박 고문과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선배들의 물심양면 지원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동기들의 믿음과 지지 속에 회장이 된 만큼 총동창회와 동기회의 활성화와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학창시절의 친구들과 모교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아 멋진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 언제나 함께 소통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용기 있게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지훈 55회 초대 동기회장이 현응열(29회) 총동창회 사무총장으로부터 동기회기를 전달 받고 있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이 자리서 박 고문은 김 총동창회장을 대신한 축사에서 “55회 동기생보다 축하객 수가 배로 많다. 55회는 복 받은 기수이다. 코로나19사태에도 총동창회관이라는 우리 자체 모임 공간이 있어 다행이었다”고 말하고 55회를 위한 삶의 조언을 전했다. 박 고문은 “불확실한 미래에 어떤 생각을 갖고 대처할 것인가”하고 묻고 “초긍정의 자세로 미래를 보라. 인생도 사업도 그쪽으로 풀린다”고 말했다.

55회 동기회는 창립총회를 기념하여 동창회보 30명 구독 신청을 하기로 했다.

◇55회 참석자=장지훈(회장) 박기흥(부회장) 이욱한(사무국장) 방병효 이종원 정보영.

◇찬조 내역=총동창회 격려금 50만원, 박종찬 고문 식사비 전액, 박종기(28회) 동기회장 20만원, 박진용(36회) 집행위부회장 30만원, 최영준(41회) 경미회 회장 20만원, 박형규(43회) 동문 10만원, 김상수 조태성 구자삼 45회 동문 30만원, 52회 동기회 10만원, 54회 동기회 30만원, 남부산지구동창회 20만원, 육한수(46회) 동문 기념떡. 현응열 사무총장 뒤풀이 비용 찬조.

56회 동기를 찾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 창립총회를 준비 중인 56회 동문들도 참석했다. 장재환, 김경모 두 동문이다. 선배인 55회의 창립행사를 축하하고 배우겠다는 취지였다. 56회도 조만간 창립총회를 갖기로 하고, 동기생 규합에 돌입했다. 연락처:장재환 010-5001-0131.

총동창회관 개관 1주년 기념 인터뷰

“코로나 속 각종 행사 연 동문전용공간 큰 역할”

상업공간 1, 2층 ‘우리가 남이가’ 하는 동문 관심 절실
‘동문들 마음 합치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교훈 얻어

총동창회관 개관의 주인공 박종찬 고문

총동창회관이 오는 6월 20일 개관 1주년을 맞는다. 총동창회관 건물 매입과 리모델링공사를 주도한 박종찬(25회) 고문은 누구보다도 감회가 남다를 것이다. 그동안 총동창회관 개관에 큰 공을 세운 남진현(19회) 초대 총동창회관장이 작고하는 아픔도 있었다. 박 고문으로부터 총동창회관 개관 1주년의 소회를 들어보았다.

박종찬(25회) 고문은 총동창회관 개관을 총동창회가 1991년부터 가졌던 숙원을 이뤄낸 역사적 이벤트였다고 말했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총동창회관 개관 1주년의 의미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 초 코로나19 기승 속에서 약 5개월간의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했습니다. 6월 20일 수백여 명의 축하객이 참가한 가운데 총동창회관이 개관 되었습니다. 1991년부터 품은 숙원을 풀어낸 역사적인 이벤트였습니다. 말로만 외치던 욕구를 실천으로 옮긴 실례가 되었습니다. 우리 동문회도 마음을 합치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귀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제는 십시일반의 잠재능력을 보여주었던 회관 개관과 같은 실천정신으로 미완의 숙제들을 완성했으면 합니다. 현임 김대욱(29회) 회장이 주관하는 모교학업지원기금 모금을 비롯하여 모교80년사 발간, 총동창회 홈페이지 업뎃관리, 덕형관 내 역사관 조성, 경남고 내 이태석 신부 미니추모공원 조성, 교내 조형물 재배치, 총원명부 발간 등 꽤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총동창회관 보유의 성과를 찾자면 어떤 것입니까?

▲리모델링공사에 관여한 약 50여 동문들의 평생 관심과 자부심은 말할 것도 없으며, 모교 재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방문을 통해 자긍심 고양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해외지역 및 국내 타지역에 거주하는 동문들이 고향 부산을 찾을 때 맨 처음으로 가볼 곳이 생겼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동문 전용의 6층 회관 공간에 들어서기만 하면 입구부터 느껴지는 뿌듯함과 함께 1층에서 6층까지 넓은 계단에 조성된 미니역사관 자료를 읽으면 ‘명문 전통을 엮어가는 경남중고인은 역시 최고야’라는 공감을 일으킵니다. 더구나 엄중한 코로나19 사태로 불가능한 단체모임도 회관 6층 강당에서 방역규정을 지키면서 집행부 회의, 지구모임, 직능 및 동호회 간부회의 등 공식모임을 갖는 공간을 제공하는 귀한 역할을 하는 회관입니다. 동문전용 회관이 없었다면 어려웠던 일입니다. 그리고 초미의 관심사인 모교80년사 발간을 위한 편찬위원회 사무소를 5층에 개설할 수 있었기에 개관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관리와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에서 보완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을 찾자면?

▲회관구입의 주목적은 낮아진 은행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1층 카페와 식당을 직영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는 심각해진 코로나 사태로 모임을 가질 수 없어 두 달간의 손실발생을 즉시 인정하고, 38회 박이현 동문을 설득하여 국제시장에서 알려진 오랜 전통 식당의 분점을 유치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전반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박 동문은 어려움 극복에 노력하고 있어 코로나가 종식되면 상황이 급반전되어 본인 수익과 회관 수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직영하였던 2층 당구장 운영도 50회 채현철 동문에게 위탁운영하도록 바꾸었고, 현재 코로나로 인한 타격을 받고 있으나 차츰 나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업공간인 1층과 2층에 대해 ‘우리가 남이가’ 하는 동문들의 관심을 기대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 총동창회관의 이용률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면?

▲1층과 2층 상업공간의 채산성 확보를 위한 대비책은 임대하고 있는 두 동문이 자체적으로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관을 방문하는 동문들의 증가에 따른 회관안내 시나리오를 사전에 매뉴얼을 작성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방문객들의 분류, 방문객 숫자, 방문 시기 등을 예측하고 안내담당자, 총동창회 소개 프리젠테이션 자료 준비 등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 외 6층 강당에 각종 모임을 유치하고 공간 사용료를 받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열린 용마장학회 이사회에서 총동창회관장 직제를 없애고 이사회 상임이사가 실무를 관장하는 형태로 체재를 바꾸었습니다. 아쉬운 감도 있습니다. 견해가 있으시다면?

▲우리 총동창회관은 여타 동문회관과는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수익을 위주로 한 회관 건물에 작은 규모의 사무국을 입주시키는 방법이 아니고, 오로지 동문을 위한 500평이 넘는 6층의 전용 회관 건물입니다. 앞으로 노후 되어 갈 건물의 사전 관리뿐만 아니라 방문 동문들을 위한 밀착서비스 업무도 병행해야 합니다. 현재 근무 중인 사무국요원들은 최근 동문회 조직의 활성화로 평소 동창회 고유업무를 하기에도 매우 바쁩니다. 따라서 회관 운영을 관장할 용마장학회 상임이사는 형식적인 자리가 아닌 실무적으로 회관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고 장학회 간사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임 이용흠(19회) 장학회 이사장은 10여년 전 총동창회장 시절 동문회를 재창조한 남다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산하에 있는 회관 운영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복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구되는 상근이사 역할에 부담이 주어진다면 무보수의 회관장의 부활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동창회관 개관 1주년 기념 주요행사 및 경과 내용

■2020년

6/ 2~5 고액기부자, 집행위, 운영위, 일반위부회장, 자문, 고문단 개관식 전 사전방문 행사
6/ 6 28회 동기당구회 경부합동 당구대회 (2층 당구장)
6/ 9 동호단체 회장단 사전방문 및 쌍백회(경중 25회) 정기모임
6/11 경친회 정기모임
6/12 부산 지구동창회장단 개관식 전 사전방문
6/15 회관 리모델링공사 참여동문 사전방문
6/17 직능단체 동창회장단 및 이희문(6회) 전 경남고 교장 사전방문
6/18 용건회 회원일동 사전방문
6/19 5회 상기중, 진도영, 임성업 동문 사전방문
19회 동기회 정기총회 및 개관기념 사전방문
6/20 경남중·고 총동창회관 개관식
6/25 29회 동기회 당구대회 (2층 당구장)
6/26 경남중 & 경남고 야구부 재학생 및 코칭스태프 견학 방문
41회 동기회 정기총회
42회 동기회 집행부외 참관 방문
44회 동기회 정기모임
6/27 50회 동기회 정기모임
7/ 7 총동창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
7/10 등대회 정기이사회
7/25 재경동창회 모교80년사 편찬위원 방문
7/29 경남중학교 운영위원 학부모 방문
8/15 총동창회 모교80년사 편찬위원회 발족식
10/27 용마 언론인 모임, 기독 신우회 정기모임
10/28 총동창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
10/31 44회 동기회 졸업30주년 기념행사 방문
11/ 3 경남고 재학생 1, 2학년 견학 방문
11/11 부·울·경 고교동창회장 연합회원 방문
11/14 54회 동기회 졸업20주년 기념행사 방문
11/19 문정수(12회)동문 동창회관 참관 방문
11/27 중부산지구 동창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기사 7면에 넘김〉

총동창회관 개관 1주년 기념 화보

'용마의 보금자리' 총동창회관, 주인은 바로 동문 여러분!

◇… 총동창회관이 오는 6월 20일 개 …◇
◇… 관 1주년을 맞는다. 동문회의 …◇
◇… 오랜 숙원을 풀고 총동창회의 신 …◇
◇… 기원을 이뤄냈다. 총동창회관에서 …◇
◇… 있었던 각종 행사는 축복의 시간 ……◇
◇… 이었다.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값진 …◇
◇… 모임이고 만남이었다. 몇 순간들을 …◇
◇… 골라 회고의 시간을 갖는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지난해 6월 20일 낮 총동창회관 개관식 모습.

총동창회관을 방문한 경남고 재학생들.

입점 간판이 붙은 현재의 총동창회관 모습.

정기모임 행사를 처음으로 총동창회관에 원정 와서 가진 남부산지구동창회.

지난해 7월 7일 열린 총동창회 이사회 및 임시총회 모습.

총동창회관 개관 이후 첫 동기회급 당구대회를 가진 28회.

총동창회관에서 정기모임을 가진 33회 참석자들이 기념티를 입고 있다.

총동창회관에서 정기모임을 가진 38회 참석자들이 기념모자를 쓰고 있다.

〈기사 6면에서 받음〉

■2021년

1/ 6~ 8 집행위 부회장단 연석회의
1/23 제58차 비대면 정기총회 및 이사회
1/29 제37, 38대 신·구 총동창회장 이·취임식
2/17 집행위 부회장단 회의
3/ 6 50회 동기회 정기총회
3/16 용마장학회 이사회
3/19~20 총동창회 기별대표자 현안회의
3/22 경미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3/25 총동창회 및 중부산지구동창회 집행부 상견례
3/31 경미회 제1회 당구대회 (2층 당구장)
4/ 2 총동창회 및 사하지구동창회 집행부 상견례
4/21 총동창회 및 부산진·연제지구동창회 집행부 상견례
4/29 총동창회 및 언론인모임 상견례
4/30 용건회 임시총회
5/ 7 총동창회 및 경야회 집행부 상견례
5/12 총동창회 및 기별동기회장 1차 상견례
5/20 총동창회 및 기별동기회장 2차 상견례
5/24 총동창회 운영위원회 모임
5/25 경미회 당구대회
5/26 용건회 임원 모임
5/27 등대회 이사회

후배들 인생의 귀감 된 총동창회 '지킴이'

고 남진현(19회) 총동창회관장 49재 거행

고 남진현(19회) 총동창회관장 영정과 위패.

지난 5월 23일 오전 해운대 해월정사에서 고 남진현(19회) 총동창회관장의 49재가 열렸다. 고인에 대한 마지막 인사의 자리에 20여 동문이 참석, 그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그의 갑작스런 타계에 많은 동문들이 안타까워하며 애도를 표했다. 투병 중이면서도 임종 1주일 전까지 거의 매일 총동창회관을 방문, 후배들을 격려하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던 '철인(鐵人)'의 죽음이었다. 언제든 격의 없이 만날 수 있던 선배인지라 한동안 소원했던 후배들은 그가 그립다며 더욱 애통해 했다.

그는 35년여의 세월을 경남중고 총동창회 '지킴이'로서 활약했다. 총동창회의 크고 작은 행사에 참석하여 우애를 나누었다. 모교와 동문을 사랑하고 위하는 일에는 늘 앞자리에 있었다. 잘못된 일에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 더러는 미움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대의(大義)를 좇는 그의 강직함은 언제나 화합과 단결이 잣대였다.

그는 여러 명의 역대 총동창회장을 보필했다. 총동창회 역사기록에서 주인공의 자리에서는 비켜나 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에서 민 인물이다. '그가 없었더라면 총동창회는 어떻게 돼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존재감은 컸다.

그의 '빈 자리'는 후배들이 채워 갈 것이다. 한 동문은 '먼 길' 떠난 그에게 '선배님을 인생의 귀감으로 삼아 더욱 성실하게 살아 갈 것을 맹세하며, 평소에 남기신 뜻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글을 밴드에 올렸다.

동문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온 그는 이제 영원한 안식에 접어들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고 남진현 총동창회관장 49재에 참석한 동문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2022년도판 회원총명부 발간한다

'회원 명부' '직장·직능·지역별명부' 2권 엮어 동문 광고 협찬 기대

총동창회는 2022년도판 '경남중고 총동창회 회원총명부'를 발간한다. 회원총명부 발간사업은 내년 뜻깊은 모교 개교 80주년을 맞아 모교80년사 편찬과 함께 추진된다. 회원총명부는 5년 주기로 제작되어 왔다. 회원총명부는 모교80년사와 함께 금성기획이 제작을 맡았다.

회원총명부는 배출 동문들을 규합하고, 동문간 유대 강화와 정보교류에 제작 의미를 둔다. 더불어 동문들의 모교와 총동창회에 대한 자긍심과 소속감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이번 회원총명부는 지난 2017년도판과 같이 '회원 명부'와 '직장·직능·지역별명부' 2권으로 엮는다.

회원총명부 제작은 동문들의 광고 협찬으로 진행된다. 회원총명부 발간사업 수익금은 총동창회 발전기금으로 사용된다. 현재 동문들에 대한 개인 신상변경 확인 작업과 광고게재 협조 제안을 진행하고 있다.

중부산지구, 80년사편집위원 방문 격려

경남중·경남고 편집실 찾아가 금일봉 전달

모교 경남고와 경남중, 그리고 총동창회관을 지리적으로 아우르는 중부산지구동창회는 모교80년사 편찬 작업이 마치 내 일인 양 애가 쓰이고, 협조할 일이 뭔지를 고민하고 있다. 바로 동문애이다.

중부산지구동창회 집행부는 80년사 편찬 작업을 펼치고 있는 경남중, 경남고 편집실을 지난 4월 14일과 27일 각각 방문, 80년사 편집위원들을 격려하고 금일봉을 전달했다.

지난 4월 27일 경남고 덕형관 편집실을 방문한 이영학(26회) 회장을 비롯한 중부산지구 집행부는 편찬작업에 열중인 위원들을 만나 노고를 치하하고, 성공적인 편찬을 기원했다. 박종기(28회), 서강태, 정해석(이상 30회) 편집위원이 작업 중이었다. 이 자리서 박 편집위원은 지금까지 편찬작업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경남중고의 정신'이 담긴 80년사 편찬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4월 14일 중부산지구 집행부는 경남중 편집실을 방문, 김기열(23회), 전섭태(25회), 이요섭(27회) 편집위원을 만나 격려했다.

이 중부산지구 회장은 "경남중·고등학교의 정체성과 이 학교 출신 동창회의 정신적 유산을 대외에 나타내기 위해 애쓰는 80년사 편찬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반드시 내년 개교기념일에 책이 발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부산지구동창회 임원진이 경남중(사진 왼쪽), 경남고 모교80년사 편집실을 각각 찾아 편집위원들을 격려했다.

강서야구단, '최강 실버' 다이하드와 '맞짱'

강서지구동창회 탐방 14탄 '강서리틀야구단'

○…강서지구동창회(회장 김종규·31회) 소속 '강서야구단'이 지난 5월 9일(일) 오후 강서다목적운동장 B야구장에서 전국 최강 실버야구단 '다이하드'와 친선경기를 가졌다. 이날 오랜만에 몸을 푼 강서야구단은 매주 야구경기로 팀워크가 탄탄한 다이하드와는 객관적 기량면에선 열세였다. 하지만 강서야구단의 패기(覇氣)만큼은 놀라운 것이었다.

선발투수 김택영(26회) 고문의 뜻밖의 호투(2이닝 2실점)와 3회 등판한 이환용(32회) 동문의 삼자범퇴, 야수의 호수비로 3회까지 5대 2 리드를 잡았다. 하지만 깜짝 놀라 전력을 정비한 다이하드의 타선 폭발을 막지 못했다. 결국 경기는 5대 7로 내주고 말았다. 비록 이날 경기는 패했지만, 강서야구단의 미래를 밝혀준 일전이었다는 평가이다.

이날 뒤풀이 경비는 김 고문이, 생수는 김성준(44회) 동문이 찬조했다.

◇참석자=김택영(26회) 조광제(28회) 김창범 이환용(이상 32회) 김경곤(38회·대여 선수) 이수관(38회) 박진수(45회) 김성규(54회·이상 선수) 구민수(50회) 김덕형(66회).

○…강서지구동창회 동문탐방 시리즈 제14탄이 지난 4월 20일 실시됐다. 대상은 강서리틀야구단이었다. 이정우(51회) 동문이 감독, 오건진(51회) 동문이 코치로 활약 중이다. 강서리틀야구단은 지난해 강서지구동창회와 후원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날 동문탐방에는 무려 9명의 동문이 강서리틀야구장을 찾았다. 참석자 일부는 야구운동복으로 환복하여 캐치볼로 몸풀기 하기도. 이 자리서 강서지구동창회는 올해 전반기 후원금을 전달했다. 김택영(26회) 고문은 방문기념 금일봉을 전달했다.

김종규(31회) 회장은 이번 탐방을 두고 "우정과 의리로 뭉친 강서지구동창회의 진면목을 보여준 행사였다"고 말했다.

동문탐방을 마친 일행은 김성규(54회) 동문이 경영하는 '손정순 찜닭'에서 뒤풀이를 가졌다. 이날 경비는 김 고문이 찬조했다.

◇참석자=김택영(26회) 조광제(28회) 김종규(31회) 김창범(32회) 이수관(38회) 박진수(45회) 이진행(46회) 우재준(53회) 구민수(50회).

강서리틀야구단을 탐방한 강서지구동창회 집행부 모습.

'강서야구단'이 친선경기 전 모여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해지역동창회가 통영 연대도~만지도 트레킹을 다녀왔다.

답답한 일상 떨친 완벽한 '우정의 트레킹'

김해지역동창회, 통영 연대도~만지도 걷기 '힐링 축복'

김해지역동창회(회장 박원곤·32회)가 코로나19 위세로 답답하던 일상을 훌훌 털고 새로운 활력을 찾는 '우정의 트레킹'을 성사시켰다. 김해지역동창회는 지난 5월 29일(토) 통영 연대도~만지도 트레킹을 다녀왔다. 동문 16명과 가족 등 모두 19명이 참석한 모처럼 만에 갖는 힐링여정이었다. 날씨도 트레킹에 최적이었다.

오전 7시 김해시청 앞 집결 출발, 연대도 도착 후 만지도~연대도 트레킹, 늦은 점심식사, 오후 6시 김해시청 도착, 뒤풀이 후 해산으로 짜여진 완벽한 일정이었다. 박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김용진(36회) 동문의 치밀한 준비와 세심한 진행이 참가자를 만족케 하고 한마음이 되게 했다. 모두에게 축복의 날이었다.

참가자 중 최고참인 이상운(23회) 동문은 후기에서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나들이였다. 크고 작은 성의를 보여준 동문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면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피력했다. "조금 더 놀아보자(이 나이에도 후배들과 즐거운 시간을 더 가지자). 역할은 조용히 하고… 물심양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령화되어가면서 동문회 활동을 저어하는 선배기수들이 늘어난 경향에서 이 동문의 이 같은 생각은 귀감이 된다 하겠다. 한 동문은 이 동문을 '김해지역동창회의 든든한 소나무'라고 평했다. 우정이 깊으니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참가자=이상운 김영기(이상 23회) 최연삼(28회) 차의수 박광수(이상 29회) 김동욱(30회) 황성철(31회) 박원곤+1명 이원천(이상 32회) 이성열(34회) 최민석(35회) 김용진(36회) 손균효 김춘강(이상 40회) 조영호(44회) 신현식(51회)+1명 김광례(비동문)

◇찬조(동문·직책 생략)=이상운(23회) 15만원(뒤풀이), 차의수(29회) 양주 2병, 박희규(29회) 10만원, 김동욱(30회) 떡 20인분·음료, 이광희(30회) 마오타이·보드카 각 1병, 황성철(31회) 5만원, 배종찬(32회) 10만원, 정희태(34회) 15년산 도라지주 1병(시가 150만원 상당), 김규선(36회) 20만원, 김기덕(37회) 5만원, 조영호(44회) 음식물 쓰레기통 20개(시가 20만원 상당), 신현식(51회) 10만원·김밥.

지난 5월 22일 1년4개월 만에 열린 애틀란타지역동창회 모습.

1년4개월 만에 우정 나눈 동문회

박경재(26회) LA 총영사, 멀리서 흔쾌히 방문

애틀란타지역동창회

미국 애틀란타 지역 동문들이 연이은 친선 골프경기를 가진데 이어 지난 5월 22일(토)에는 둘루스 소재 청담식당에서 1년4개월 만에 동문회를 열었다. 이날 LA 총영사로 재직 중인 박경재(26회) 동문이 참석, 의미를 더했다. 박 동문은 동기생인 김우갑 동문의 초청을 받고 흔쾌히 애틀란타까지 방문, 동문 간의 우정을 나누었다. 이날 모두 15명의 동문이 참석,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즐거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후라! 경고'와 교가 제창으로 마무리 했다.

◇참석자=전영성(14회) 김태진(19회) 박동철 이윤남 이정규(이상 21회) 김우갑 박경재(이상 26회) 안근식(29회) 권건오 정종우(이상 32회) 김용민(33회) 최호성(34회) 서동욱(37회) 김대형 김정년(44회).

한편 애틀란타지역동창회는 지난 3월말에 이어 4월 17일 Tucker, GA에 있는 해리티지(Heritage) 골프클럽에서 동문 친선골프 경기를 가졌다. 이날 동문 및 가족 13명이 골프를 치고 간단한 늦은 점심식사를 하며 동문모임을 가졌다. 참가자들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터였다.

이날 김태진(부인 참가) 박동철 김현길(22회) 홍기태(22회) 김우갑(부인 참가) 권건오 정종우 김용민 서동욱 김대형 김정년 동문이 참가했다.

용건회, 총동창회관 종합점검 실시

총동창회, 지속적인 회관 관리·보수 요청

집행부 간담회 개최

총동창회관이 개관 1주년을 맞아 오는 6월 16일 오후 4시 종합점검을 받을 예정이다. 건설·건축분야 직능단체로서 총동창회관 리모델링사업을 주도했던 용건회가 이 작업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은 지난 5월 26일 오후 총동창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총동창회 집행부와 용건회 임원진 간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논의 내용을 구체화시킨 것이다.

김대욱 총동창회장이 용건회기를 박성철(32회) 용건회 회장에게 전달하고 있다.〈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이와 관련 총동창회관 개관 이틀 전인 지난해 6월 18일 오후 리모델링사업 참여 동문들이 6층 강당에 모여 고 남진현(19회) 초대 총동창회관장의 주도하에 총동창회관 건물 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한 바가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용건회가 큰 조직이고 중요한 단체이다. 총동창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성철(32회) 용건회 회장은 "모임이 코로나19로 상당히 위축돼 있다. 지난해 총동창회관 리모델링 참여로 결속력이 높아졌는데, 이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서 △경남중 실내야구연습장 건축안 검토 △총동창회관 관리 보수 등이 논의 됐다. 용건회는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용건회는 회원 참여 확대와 하반기 정기모임 준비 등을 설명했다.

총동창회는 이날 용건회 회기를 제작(양면 특수제작 디자인)해 전달하고, 지원금 3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총동창회에서는 김 총동창회장과 현응열(29회) 사무총장, 김현태(30회) 수석부회장, 류명석(31회) 집행위 정책담당부회장, 윤원욱(39회) 사무국장이, 용건회에서는 박 회장과 정현상(32회) 수석부회장, 김인수(41회) 부회장, 이충현(49회)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한편 용건회는 지난 4월 30일 오후 총동창회관 강당에서 임시총회를 가졌다. 새 집행부(상기 간담회 참석자와 동일) 인사와 발전방안 설명의 자리였다. △회원간 정보교류(소규모 입찰 모임 주선) △신규 회원 가입 추진(밴드회원 100명 목표) 등이 발표됐다.

이 자리서 이영학(26회·고문) 전 회장, 김인수(41회·부회장) 전 사무국장에 대한 감사패 전달이 있었다.

용건회 임시총회에서 신임 집행부가 인사를 하고 있다.

등대회, 잦은 소통의 기회로 활력 되찾기

이사회 열어 임원진 보강…취미 활동 전개

조선·해운·항만 업계 종사자 동문들로 구성된 등대회 이사회가 지난 5월 27일 오후 총동창회관에서 열렸다. 코로나시국이라 전체 회원이 참가하는 행사는 갖지 못하고 이사회로 정기모임을 대체했다.

이날 등대회는 올해 행사계획을 확정하고, 임원진을 보강했다. 분기별 골프모임과 당구 및 바둑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부회장단 보강 차원에서 성귀호(36), 박이현(38회) 동문을 추가로 선임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수시로 긴급모임을 갖기로 했다.

안청홍(29회) 등대회 회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제약이 있다. 하지만 백조가 물밑에서 쉼없이 발을 젓듯이 등대회 회원들은 각자가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 신규회원 영입과 조직 내 취미서클 운영 등으로 모임의 존재감을 유지하도록 하겠다. 어떤 형식이 되든 잦은 소통의 기회를 갖는 게 중요하다"면서 참가자들의 건승을 기원했다.

이 자리서 현응열(29회) 사무총장은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을 대신하여 새 집행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의 총동창회 활동과 향후 업무의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현 사무총장은 "과거 전성기 때만큼 조직의 활력을 회복해 나가자. 이 여세를 몰아 동창회 발전에 큰 힘이 돼 달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 등대회 회장과 등대회 이사 다수, 현 사무총장, 윤원욱(39회)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총동창회는 지원금 30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등대회는 지난 4월 22일 낮 해운대비치골프앤리조트에서 김 총동창회장을 초빙하여 등대회골프분과 모임 행사를 가졌다.

현응열 사무총장이 안청홍 등대회 회장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등대회 골프분과 모임 행사 모습.

'고교동창 골프 최강전' 선수 확정

용마골프회, 박굉용(25회)정홍원(36회)정의석(44회) 동문 선발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 예비선수

'고교동창 골프 최강전' 출전 선수들이 경기장 사전 점검을 하고 필승을 다짐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굉용(25회) 정홍원(36회) 정의석(44회) 동문.

용마골프회(회장 이종휘·32회)는 지난 5월 24일 오후 총동창회관에서 집행부 모임을 갖고 '2021 키움증권배 고교동창 골프 최강전' 하반기 예선전 대회 출전 선수들을 선발했다. 박굉용(25회) 정홍원(36회) 정의석(44회) 동문이 주전으로 발탁됐으며, 16강전부터 추가로 허용하는 예비선수 1명에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이 뽑혔다.

하반기 예선전 조편성은 오는 6월 16일 오후에, 경기는 6월 21~23일 3차에 걸쳐 진행된다. 32강전과 16강 조추첨은 6월 28일 열린다. 경기 장소는 경북 상주시 블루원상주골프리조트이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은 이 대회는 SBS골프의 대표 장수프로그램으로 국내 유일의 고교동문 대결의 장으로 이름이 나 있다. 우승팀에게는 모교 장학금 2,000만원, 준우승팀 1,000만원, 공동 3위팀 50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박종찬(25회) 고문, 변함없는 후배사랑 "감동"

조중완(54회) 동문 가게 간판 새것 교체해줘
동창회 활동 열심인 동문들 '골프초청' 이어가

박종찬(25회) 총동창회 고문의 후배사랑의 열정이 지속되고 있다. 총동창회장 직 수행 지난 3년 동안 보여준 동문애가 퇴임 이후에도 변함이 없어 동문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박 고문은 지난 3월말 사상구 소재 조중완(54회 동기회장) 동문이 경영하는 음식점 야끼짱에 들러 54회 동문 몇몇과 저녁식사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서 조 동문이 야끼짱 리모델링을 이야기하자 즉석에서 매장 간판을 새것으로 선물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날 박 고문은 총동창회관 3층에 입주해 있는 권우일(45회) 동문의 ㈜대경커뮤니케이션에 간판을 주문했다. 지난 5월초 기백만원대의 금밀러 간판이 야끼짱 업소에 부착되었다. 빛나는 새 간판에 벅찬 감동을 받은 조 동문은 "박 고문의 후배사랑에 감격했다. 나도 후배에게 이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선배가 되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덕(德)으로 쌓은 후배교육이 동문사랑 전통으로 다져지는 모습이다.

박 고문은 후배사랑은 골프모임으로도 표출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15차에 걸쳐 진행된 '위스키 초청 강연'이 골프초청으로 변화된 양상이다. 박 고문은 각 기수, 직능단체, 지구 및 지역 동창회 등서 동문회 활동이 활발한 후배들을 골프에 초청, 격려하고 우정을 다져주고 있다. 6월 8일에는 양산지역동창회 동문들과 정산CC에서 운동하기도.

박종찬 고문이 조중완(54회) 동문에게 선물한 음식점 '야끼짱' 간판.

경미회 당구대회 수상자들. 왼쪽부터 3위 이진배(43회), 우승 권우일(45회), 준우승 정준섭(54회), 4위 전삼록(41회) 동문.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권우일(45회) 동문 '취권당구' 진수보이며 우승

경미회 당구대회, 코로나시국 유익한 소통 시간
신설 문화체육분과 위원장에 손창오(45회) 동문

경미회(경남중고미래발전협의회)가 제2회 월례회 당구모임을 지난 5월 25일 열었다. 코로나시국에서도 마스크를 낀 4인 이하 모임형식의 체육활동이라는 차원에서 즐겁고 유익한 소통의 시간이 되었다.

이번 대회 우승자는 권우일(45회) 동문으로 일명 '취권당구'의 진수를 보이며 패권을 거머쥐었다. 준우승 정준섭(54회), 3위 이진배(43회), 4위 전삼록(41회) 동문이 각각 차지했다.

우승자 권 동문은 우승상금 30만원을 경미회 대외협력분과에 10만원, 제3회 대회에 10만원, 7월 예정인 스크린골프대회에 10만원을 각각 찬조한다고 밝혔다. 젊은피 돌풍을 일으킨 준우승자 정 동문은 상금(10만원)을 경미회 모임을 위해 쓰겠다고 말했다.

경미회는 대회 종료 후 품평회 및 개선사항 의논 등 뒤풀이 시간을 가졌다. 제3회 대회는 오는 6월 23일(수) 분과별(분과별 대표 선수 3명) 당구대회로 열린다. 연말에 우승자들끼리 챔피언전을 열어 왕중왕을 가릴 계획이다.

◇찬조=우영환(40회·고문) 우승 상금 30만원, 전삼록 20만원, 신현식(51회·제1회 대회 우승자) 10만원.

한편 경미회는 4월 정기모임을 5월로 연기했다가 이마저도 순연하게 되었다. 경미회는 5개 분과위원회 각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선임했다. ▲대외협력분과=안병규(44) 분과위원장 최진영(49) 사무국장 ▲미래발전분과=정용중(42) 분과위원장 김지운(52) 사무국장 ▲사회공헌분과=박형규(43) 분과위원장 감기환(47) 사무국장 ▲친목교류분과=신정일(46) 분과위원장 신현식(51) 사무국장 ▲문화체육분과=손창오(45) 분과위원장 김정현(50) 사무국장.

경미회는 최영준(41회) 회장, 최원석(46회) 사무국장, 박보순(51회) 재무국장 3인 집행부에서 42~45회 기수에서 부회장 한 명씩을 선임, 총 7인의 확대 집행부를 구성키로 했다.

경미회는 오는 6월 19일 개최 예정이었던 족구대회를 연기했다. 일정은 추후 논의. 스크린골프대회는 오는 7월 3일 갖는다.

김대욱 총동창회장이 제8기 대주배 시상식을 갖고 있다.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 바둑 기량 화제

'입신' 서봉수 9단·세계 1위 신진서 9단과 수담

동문사회에서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의 바둑 실력이 화제가 되고 있다. 김 총동창회장이 최근 가진 2개의 대국이 바둑TV를 통해 중계되었다. 상대는 설명이 필요 없는 '입신의 경지' 서봉수 9단과 세계랭킹 1위인 신진서 9단이었다. 최정상급의 고수들과 수담(手談)을 나눌 정도의 기량이라면?(헉!) 아깝게 패했지만 김 총동창회장의 수준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프로가 아닌 아마급에서 최고수는 7단이다. 아마7단은 바둑을 업(業)으로 하는 최고수이다. 그 아래 취미로 하는 바둑 최고수를 아마6단이라 칭한다. 김 총동창회장은 아마6단으로 통한다.

김 총동창회장의 바둑 기량도 놀랍지만, 이번 두 대국을 갖게 된 배경이 감동적이고 동문의 자랑거리로 충분하다.

서 9단은 지난 4월 14일 서울 K바둑 스튜디오에서 벌어진 제8기 대주(大舟)배 남녀 프로시니어 최강자전 결승전에서 유창혁 9단을 누르고 우승했다. 이 대회 스폰서가 김 총동창회장의 회사 TM마린이다. '대주'는 김 총동창회장의 호이다. 대회 창설 취지가 시니어들의 생활에 도움도 되고 노년기사들 예우한다는 것이다. 서 9단과 김 총동창회장 간의 대국은 이 대회 우승자와 스폰서 간 기념대국이었다.

지난 5월 17일 벌어진 신 9단과의 대국 역시 김 총동창회장의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됐다. 한국기원 연구생들은 AI(인공지능) 컴퓨터와 훈련하며 기량을 쌓고 있다. 한국기원은 각계의 기부를 받아 AI컴퓨터를 구입했다. 기부자들에게는 프로 최고 고수들과 기념대국의 기회를 선사했다. 그 첫 번째 대국이 세계랭킹 1위 신 9단과 김 총동창회장의 대국이었다.

김대욱 총동창회장이 제8기 대주배 우승자 서봉수 9단과 기념대국을 하고 있다.

동창회보 기고는
yongma2007@hanmail.net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10회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음악회에서 연주하고 있는 용마코러스 위용.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코로나19로 지친 삶 위무한 '사랑의 선율'

제10회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음악회, '치유의 밤' 선사
용마코러스, 4회 특별출연…힘의 하모니로 존재감 부각

테너 전병호(42회) 동문 출연

제10회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음악회가 지난 5월 18일 오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선종 11주기를 맞은 고(故) 이태석 신부(경남중고 35회 동문)의 숭고한 삶을 기억하고 그의 사랑과 나눔, 그리고 평화의 정신을 음악으로 되새기는 자리였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지치고 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름다운 선율로써 위무한 '치유의 밤'이었다.

이번 음악회는 1부 순서를 올해 서거 120주년을 맞이한 베르디의 대표적 오페라 '리골레토' 갈라콘서트 형식으로 꾸몄다. '리골레토' 1, 2, 3막 중의 주요 아리아를 재능기부한 성악가들이 출연, 잘 풀어냈다. 이 같은 형식의 무대가 관객들에게는 좋은 음악적 기회라는 점에서 이태석 기념음악회가 제10회를 맞아 성숙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올해 4번째 특별출연한 2부의 용마코러스(단장 최상규·31회) 무대는 이 음악회의 주요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이었다. 만약 용마코러스 무대가 없었더라면 이 음악회 전체의 '무게감'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 용마코러스의 존재감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날 1부 음악회는 정희정 KNN 아나운서의 작품 해설에 이어 오충근 예술감독이 지휘한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비장하고 장엄한 분위기의 전주곡으로 막이 올랐다. '리골레토' 중 만토바 공작 역인 테너 전병호(42회) 동문이 아리아 '이것도 저것도'를 부른 것을 비롯, 바리톤 김기훈, 소프라노 김성은, 메조소프라노 이지영 등 4명의 성악가가 5곡의 아리아를 들려주었다.

이 신부 추모영상으로 시작된 2부 음악회는 한국 가곡편으로 김효근 작곡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전병호 노래) 등 5곡을 네 성악가가 절창했다. 이어서 용마코러스가 '내 영혼 바람 되어'(김효근 작곡) '푸르른 날'(권태우 편곡) 두 곡을 힘차게 불렀다.

이날의 피날레곡은 이 신부 작곡 '묵상'으로 네 성악가와 용마코러스가 함께 불렀다. 곡이 다소 길고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단기간 연습으로는 소화해내기 어려운 곡이었지만, 무리 없이 연주되었다. 노래 '묵상'에는 이 신부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다. '난 영원히 기도하리라/세계평화 위해/난 사랑하리라/내 모든 것 바쳐'.

용마코러스는 이번 연주가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에서 진행된 것이라 개인 및 음역별 연습에 이어 단체연습 3차례, 리허설만으로 무대에 올랐다. 열악한 환경을 단원들의 노력으로 극복, 이번 공연을 무난하게 치렀다는 자체 평가를 내렸다.

이날 음악회에는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 내외, 박종찬(25회) 고문 내외를 비롯, 강부덕(20회) 총동창회 자문위원, 정윤희(36회) 해운대지구동창회장, 김태호(38회) 총동창회 일반위부회장, 경미회 최영준(41회) 회장 등 회원 15명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 총동창회장은 개인 금일봉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 용마코러스 단원 26명이 출연했다. ▲테너=안창범(18회) 장춘식(20회) 김형수 최상규(이상 31회) 박근태 안승진(이상 39회) 박형규(43회) 김황 안병규 최헌 탁정환(이상 44회) 노재훈(50회) 김현윤(58회) ▲베이스=정용식(31회) 심재민(38회) 김병기 노성수 백기현 이상학(이상 39회) 김동원(41회) 신봉준(42회) 문형준(44회) 김백권(46회) 조성빈(47회) 김석훈(50회) 이시원(51회).

제10회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음악회에서 용마코러스와 전 출연진이 함께 노래하고 있다.

용마코러스 단원과 관람 동문들이 함께 자리했다.

용마언론인클럽 "코로나19 이후 대비"

1년2개월 만에 '작은 모임'

김대욱 총동창회장이 조선(34회) 용마언론인클럽 회장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부울경용마언론인클럽(회장 조선·34회)이 소수 인원의 '작은 모임'을 지난 4월 29일 오후 총동창회관에서 가졌다. 1년 2개월 만에 열린 행사였다. 그동안 수차례 모임 연기가 있었다. 그런 만큼 이날 만남이 안겨준 감동은 더 컸다.

조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현직 언론인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의 강도가 매우 크다. 참석 독려를 많이 못했다. 오는 11월 이전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니, 연말모임에는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회원들의 건강관리를 주문했다.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은 이날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언론인의 역할이 크다"고 격려하고, "전임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이 뿌린 씨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해야 한다. 분위기가 중요한데 이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언론인들에게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서 김기열(23회) 동문은 김 총동창회장의 '통 큰 기부'를 치하한 뒤, 모교80년사 편찬위원회의 근황을 전하고 최선의 역할을 약속했다.

총동창회는 이날 30만원의 격려금을 전했다. 김현태(30회) 총동창회 수석부회장은 고급 볼펜을 선물했다.

인터뷰

공연계, 코로나로 직격탄…동문 선배 금일봉에 용기 얻어

미성의 성악가 전병호(42회) 동문

제10회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음악회에 정상급 성악가로 활동 중인 전병호(42회) 동문이 출연했다. 리릭 레지에로(Lirico-leggero) 테너로 전 동문은 '매우 귀한 미성의 성악가'로 이름이 나 있다. 전 동문을 지난 5월 23일 오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만났다.

국내 정상급 성악가로 활동 중인 미성의 전병호(42회) 동문이 이태석 기념음악회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독일 뒤셀도르프 극장, 하겐 극장 주역 가수로 활약했었다. 국내외에서 20여편의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했다. 가장 애착이 가는 오페라와 아리아를 소개하자면?

▲출연한 모든 작품이 다 애착이 간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하기도 하고 잘 맞는 오페라가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이다. 사랑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하는 순박한 시골청년 네모리노가 오페라 2막에서 부르는 아리아 '남 몰래 흐르는 눈물'은 가장 사랑하고 또 즐겨 부르는 아리아이다.

요즘같이 물질문명이 고도로 발전하고 산업화된 사회에서 그 가치의 중요성이 뒤로 밀려나 있는 사랑, 진심, 우정 등의 귀중한 가치를 주인공 네모리노에게서 발견하고 감동하는 여주인공 아디나의 눈물을 보고 감격하며 부르는 아리아이다. 유트브에서 '테너 전병호 Una furtiva lagrima'를 검색하면 이 아리아를 들을 수 있다.

-리릭레제로 테너인데, 목청관리는 주로 어떻게 하나?

▲성악은 몸이 악기라고 한다. 신체적인 건강 컨디션을 항상 좋은 상태로 유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마음의 건강도 마찬가지이다. 적당한 운동도 반드시 필요하다. 성악가의 최고의 적은 아마도 역류성 식도염이 아닐까 싶다. 위산이 역류하면 식도와 성대주변을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목소리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온다. 그래서 저녁 늦은 시간에 음식물 섭취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연주를 마친 후 빠질 수 없는 뒤풀이 자리에서 뭔가를 늦은 시간에 먹었다고 한다면 소화가 다 될 때까지 앉아서 자기도 한다.

-요즘 유튜브에 찬송가 시리즈를 내놓아 감동을 주고 있다는데 개인적으로 감회는?

▲1997년부터 노래를 하면서 생활을 시작했으니 근 24년을 신이 주신 목소리 하나로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음악을 시작하게 된 것도 중학교 1학년 때 우연히 듣게 된 구덕교회 수요일 저녁예배 성가대 찬양에 감동을 받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 것이 가장 큰 계기가 되었다. 그러면서 중고등학교 시절 교회성가대로, 또 경남고 시절에는 합창부로 활동을 하면서 본격적인 음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대학을 마치고 1997년 독일에서 시작한 유학생활과 오페라 가수 생활, 그리고 2005년 귀국하여 16년간 아무 연고도 없는 서울, 경기에서 연주자로서 오늘날까지 활동하게 된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그 모든 일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 영상을 올리고 있다. 이제 나이도 50을 넘기고 있고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젊을 때 많이 찬양 자료들을 남기고 싶다.

'몸이 악기'라서 매일 점검하듯 연습·역류성 식도염 가장 경계
경남고 시절 합창부…아리아 '남 몰래 흐르는 눈물' 가장 즐겨

-유튜브에 차 운전 중 가곡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를 부르는 게 나온다. 연습은 얼마나 하나?

▲성악은 몸이 악기라는 큰 장점이자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매일 매일의 악기상태를 점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오페라 공연을 준비한다면 독일에서는 한 작품당 약 6주의 시간을 들여서 거의 매일 전체가 연습을 한다. 한국은 조금 사정이 다르지만 그래도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만 한다. 개인 연습은 거의 매일 해야 한다. 어제 소리가 잘 났다 하더라도, 오늘 그 소리가 100% 동일하게 난다는 보장이 없기에, 성악가는 무대에 서는 그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

-성악에 자질이 있는 것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다. 덧붙여 자신의 음악적 특색을 소개해 달라.

▲경남고등학교 합창부를 하면서 2학년부터 작곡을 배우기 시작했다. 공주사범대학을 진학해서 음악교사가 되고 싶었으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대학교를 떨어지는 바람에 재수를 하게 되었다. 주변에서 목소리가 있으니 성악을 해보라는 권유를 많이 받았고, 재수하는 1년 동안 레슨을 받고 부산대를 진학하면서 성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나는 가볍고 서정적인 목소리의 테너이다. 테너도 목소리의 음색에 따라 레지에로(가벼운) 테너, 리릭(서정적인) 테너, 드라마틱 테너 등으로 나누어진다. 나의 목소리 특징으로 보면 롯시니나 모차르트, 도니제티 등의 작품에 적합한 리릭 레지에로 테너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각종 연주회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힘든 시간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모두가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특별히 공연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거의 프리랜서로 일하는 시스템인 음악계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연주가 엄청나게 취소 되었다. 어렵게 어렵게 준비한 연주도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져서 무대 셋업까지 마친 공연 전날 예술의 전당이 셧다운 되면서 공연이 취소되는 상황도 있었다. 그러면서 나름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자 유트브로 공연자료들도 올리면서 연주의 끈을 이어가고 있다.

감사 한 일은 개인 유트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서울 용마합창단의 모 대선배께서 연락이 왔다. 요즘 예술가들 힘들지 않느냐고 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금일봉을 선뜻 보내주었다. 어려운 시기에 큰 힘과 용기를 얻기도 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그 선배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향후 계획은?

▲크고 작은 연주들이 그래도 조금씩 재개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희망을 가져본다. 6월에는 국립오페라단의 '사랑의 묘약' 공연을 홍성 홍주문화회관에서 열 예정이다. 7월에는 고양 아람누리에서 공연이 있다. 8월에는 서귀포 오페라 페스티발로 오페라 '신데렐라'에 출연하고, 9월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오페렛타 '박쥐'에 출연 할 예정이다.

-요즘 활동하는 곳은?(성가대 지휘나 학교?)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에서 전공레슨과 수업을 하고 있다. 교회는 용인 동백에 있는 높은 뜻 하늘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로 있다. 요즘은 성가대 활동이 어려워 중창팀이나 솔로로 찬양드리고 있다.

-가족관계는?

▲아들만 셋이다. 큰 아들은 이제 다음 달 입대를 앞두고 있다. 국내 최대 모델 에이전시의 하나인 에스팀에 전속모델로 있는데, 역시 코로나 상황으로 개점 휴업 상태이다. 둘째는 고2, 막내는 초등학교 4학년이다. 아내도 피아니스트로 가끔 같이 연주하고 있다. 오는 8월 29일에는 아내와 함께 부산에서 연주회를 기획하고 있다.

화가 박윤성(24회) 동문, '자갈치' 대작 화제

미관화랑 초대전 가져

'붉은색의 화가' 박윤성(24회) 동문 초대전이 지난 4월 27일~5월 10일 민락동 소재 미광화랑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 150호 크기의 '자갈치' 작품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 2019년 10월 송혜수미술상 수상 기념전 때 발갛게 타오르기 시작하는 '부산항의 아침'이란 대작을 출품했던 박 동문은 이번 전시회 대표작으로 부산항 중에서도 남항의 자갈치를 소재로 삼았다. 자갈치란 무대의 주연은 각종 어패류들이다. 모두가 살아서 좌판 위에서 펄떡이고 있다. 장을 보러 온 사람은 조연이다.

박 동문은 어릴 적부터 보아온 자갈치에 대한 기억들을 대형 화폭에 담았다고 말했다. 고래, 갈치, 고등어, 도미, 오징어, 새우, 문어, 게 등 다양한 어패류가 사람들과 얽혀 있다. 도떼기시장의 모습이지만, 어패류들이 뮤지컬 공연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모니를 느낄 수 있다. 정겹고 흥이 나는 어시장이다.

박 동문은 이번 전시회에 지난 1975년부터 올해까지의 작품들을 내놓았다. 지난 6월 1일 만70세 생일을 맞았던 박 동문의 반세기 그림 이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였다. 1975년작 '촉석루'에서 2021년작 '블랙홀'까지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온 박 동문의 창작 열정이 읽혀졌다. 마스크가 나오는 '블랙홀'은 코로나19 사태가 낳은 '위기의 시대상'을 표현했다. 자연과 문화에 전통적 민족 정서를 담아온 박 동문의 새로운 변화이다. 하지만 붉은색 기조의 바탕은 그대로이다. 고유한 자기세계에 아무도 범접할 수 없다.

화가 박윤성(24회) 동문이 자신의 작품 '자갈치' 옆에 서 있다.

박흥식(30회) 유영배(33회) 박규열(38회) 길현(41회) 여근섭(41회)

동문 화가 5인 작품 한 자리에

부산고 출신 네 작가와 유례없던 '연합전시회' 열어
김대욱 총동창회장·박종찬 고문, 동문사랑 '빨간딱지'

경남중고 동문 미술인 5명의 작품이 한 자리에 모였다. 부산중고 동문 미술인 4명도 함께했다. 'Beyond ambiguity(모호함을 넘어서)'라는 타이틀로 기획된 '경남고·부산고 미술인 연합전시'이다. 지난 5월 1~31일 한달간 해운대구 영무파라드호텔 3층 더코르소(대표 장선헌) 갤러리에서 열렸다. 일찍이 유례가 없었던 미술전시회였다.

이번 전시회는 지역 최강의 고교 동문 미술인들을 초청, 지역사회의 문화 창달과 협력, 화합과 미래 창조라는 의미를 표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상을 초월한 힘든 시기에 동문사회를 자극하고, 미술애호가들의 주목을 받아보려는 몸부림이었다. 경기 침체에 코로나19까지 덮친 상황에서 예술인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할 형편이라 말한다. 그런 차원에서 두 고교 동문 미술인 전시회는 일종의 예술인 동문돕기 기획이었다. 갤러리 측은 그림 판매수익금 일부를 총동창회 발전기금으로 기부할 계획이다.

더코르소 해운대관 개관 기념전이기도 한 이번 전시회에 경남고에서는 박흥식(30회) 유영배(33회) 박규열(38회) 길현 여근섭(이상 41회) 동문 등 5작가가 참여했다. 부산고에서는 김덕길(25회·경남고 26회와 동년배·경남고 기수 -1) 김윤찬(38회) 김성기(38회) 서영호(56회) 씨 등 4작가가 작품을 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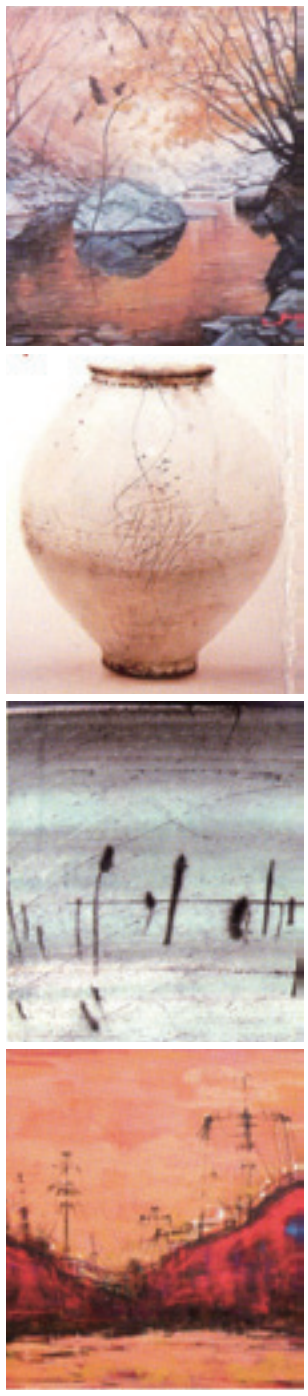
박흥식 동문은 오랜 인도네시아 체류 생활을 접고 귀국하여 지난해 8월 부산 해운대 갤러리아트 '숲'에서 제31회 개인전을 여는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다. 지역 곳곳, 특히 해안가의 바람이 머문 현장의 풍경들이 화폭에 담겨 있다.

유영배 동문은 개인전 3회의 경력으로 작품활동이 많지 않았다. 최근 들어 본격적으로 작업에 몰입하면서 이번 전시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계류(溪流) 등 자연을 소재로 한 풍경이 주소재이다.

박규열 동문은 달항아리를 그리는 작가로 개인전 11회의 경력을 갖고 있다. 멀리서 그림을 보면 마치 달항아리가 거기에 놓여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세밀한 붓터치가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길현 동문은 봄을 기다리는 겨울논, 살포시 언 들판 같은 곳에서 뭔가를 기다리는 듯한 그리움을 연상케 하는 유화 작품들을 출품했다. 한국 추상화의 선구자인 박서보 선생의 조수로 활동하다 남해 폐교에서 길현미술관을 연 길 동문은 최근에는 설치작업을 많이 하고 있다. 이곳에서 탤런트 박원숙 씨 등 유명인사들을 지도한 바 있다. 개인전 18회의 경력이다. 〈기사 15면에 넘김〉

박흥식(30회) 동문 그림 앞에서 관람 동문들이 작가(오른쪽에서 세 번째)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경남고·부산고 미술인 연합전시'에 참가한 유영배(33회) 박규열(38회) 길현 여근섭(이상 41회) 동문의 작품(위에서부터).

하덕모(3회) 동문, 한국 최초 '식품미생물학 사전' 출간

92세 고령 불구 6년 집필 완성

하덕모(3회·동국대학교 명예교수) 원로동문이 최근 '식품미생물학 사전'을 출간했다. 발효공학의 세계적 권위자인 하 동문은 92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6년 걸린 집필 끝에 희귀 자료를 집대성하는 노익장을 과시했다.

'식품미생물학 사전'에서는 식품과 연관되는 다양한 유용미생물과 유해미생물을 망라했다. 미생물의 분류, 종류, 성질, 구조와 기능, 생육과 환경, 영양과 대사, 유전, 미생물 관리 등의 미생물학의 기초분야를 비롯하여 생물공학과 함께 발전된 각종 유용물질의 생산, 식품의 부패와 저장, 환경정화 등을 포함한 응용미생물학 분야와 미생물성 식중독, 식중독균, 원인물질, 원인식품, 증상 등이 대상이 되는 식품위생학 분야 등을 포함했다.

특히 각종 미생물을 분자생물학 유전공학의 응용으로 크게 바뀌고 있는 최근의 미생물 분류체계를 통해 깊이 있게 해설하고, 발전된 최신의 응용미생물학과 식품위생학의 내용과 함께 식중독균을 포함한 각종 미생물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했다. 또 현재 사용되는 용어와 많은 동의어가 통용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이들 동의어도 함께 수록함으로써 어느 동의어로부터도 그 뜻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편집했다.

이런 종류의 사전이 출판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최초이다. 하 동문은 "식품미생물학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농학, 공학, 이학, 의학, 약학, 바이오시스템 등의 대학뿐만 아니라 양조 및 발효공업, 식품공업, 의약품공업 이외에 식품위생, 보건, 의료 등의 여러 분야에서 유용한 최신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 동문은 동국대학교 대학원장, 한국식품과학회 회장, 일본 동경대학 응용미생물연구소 객원교수, 한국식품과학회 회장,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회장, 한국응용생명화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식품공학, 식품미생물학계의 원로이다. '식품미생물학' '발효공학' '응용미생물학' 등 많은 전문 저서를 펴냈다.

대역작 '식품미생물학 사전'을 펴낸 하덕모(3회) 동문.

'식품미생물학 사전' 표지.

모교의 전신인 부산 제2중학교는 해방 직후 일본인 학생들이 귀국해버리니 한국인 학생만으로 학급을 편성하기에 부족해서 전국 각지로부터 많은 학생의 전학을 받았다. 하 동문도 대구에서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하는 와중에 경북중학교로부터 전학 오게 되었다. 이 시기에 김영삼(3회·전 대통령) 동문도 통영중학에서 전학왔다.

하 동문은 일찍이 일본 유학길에 올라 메이지(明治)대학을 졸업하고 동경(東京)대학 농대 대학원에서 발효공학을 전공했으며 1962년에 농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동문으로서는 박사학위 1호 취득자인 하 동문은 70년대에 동창회가 전개한 경남고 '재수생 진학을 위한 지도사업'의 지도위원으로서 후배들의 진학에 적극적인 관심을 쏟아 강의는 물론 모의시험 때도 직접 가르치기도 했다.

1971년 3월 동국대학교 식품공학과 주임교수에서 공대학장으로 취임 시,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는 길만이 자기가 할 일"이라 말하면서 끊임없는 연구의 길을 걷는 학자의 모습을 실천해 왔다.

부산시 최초의 여성 부산시의원과 부산시교육위원을 역임했던 허무인 여사가 모친이고, 하청정(14회) 동문이 친동생이다. 부인 김명숙 여사와 성남시 분당의 아파트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다.

〈글=박종기(28회) 편집위원〉

"나를 비운다는 것은, 죽음을 산다는 것"

시인 조달곤(13회) 동문, 시집 '낮이 말라…' 펴내
노년의 존재론에 대한 사색과 깨달음 절절히 읊어

시인 조달곤(13회) 동문이 최근 시집 '낮이 말라 밤이 차오르듯'(솔 출판사 간)을 펴냈다. 세 번째 시집이다. 조 시인은 경북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한때 경남중 교사로 근무했다. 이후 경성대 국문과 교수로 활동하다 정년퇴임한 뒤 경남 밀양 산외면에서 과수원 농사를 하며 시 작업을 하고 있다.

문학평론가 김경복 경남대 교수가 조 시인의 시집을 두고 '노년의 존재론과 최후의 양식으로서의 시'라는 제목의 해설을 달았다. 조 시인의 시는 노년의 존재론에 대한 사색으로 가득 차 있다. 노년의 존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를 표제 시에 담았다.

나를 비운다는 것은 / 가을 한철 억새꽃이 되어 은빛 물결로 살다가 /바람이 된다는 것 / 바람으로 살다가 바람소리 떠나보내고 / 다시 고요해진다는 것

시집 '낮이 말라 밤이 차오르듯' 표지.

한겨울 빈 가지가 되어 / 눈 오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 / 겨울 숲속의 나무와 같은 문장을 쓴다는 것

나를 비운다는 것은 / 폐사지 탑 그림자처럼 마른다는 것 / 산그늘처럼 마른다는 것 / 낮이 말라 밤이 차오르듯이 마른다는 것

내 안의 축축한 죄의 기억을 몰아낸다는 것 / 내 안의 슬픔과 울음 한 됫박을 덜어낸다는 것

단순해진다는 것 / 침묵한다는 것 / 기다림을 받아들인다는 것 / 나를 비운다는 것은 /죽음을 산다는 것

-시 '낮이 말라 밤이 차오르듯' 전문

기다림을 받아들이고 나를 비움으로써 '죽음을 산다는 것'에 이른 노년의 깨달음을 절창했다. 삶이 죽음이고 죽음이 곧 다른 삶일 수 있다는, 존재의 무상함과 구원을 웅숭깊게 함께 담고 있다. 거기까지 이르게 한 도구가 조 시인에게는 시(詩)이다.

팔질(八耋)의 조 시인이 갖는 사색은 처연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오랜 세월의 교단을 떠나 산골에서 과수원 일과 독서, 사색과 시작(詩作)의 일과는 깊은 내면의 세계로 닿아 있다.

시간의 뼈들이 / 하얗게 부서져 내리고 있다 / 정처없이 / 풀풀 날리고 있다 /물끄러미 그걸 바라본다 / 물끄러미

-시 '시간의 뼈' 전문

팔질에 시집 펴낸 조달곤(13회) 동문.

소멸해 가는 시간, 즉 인간으로서 운명적으로 맞이해야 할 죽음을 관조하는 모습이다. 불가피한 슬픔이다. 그러나 마냥 슬픔에 갇혀만 있지 않다. 시 '말씀'에서 '하느님은 최초의 시인이었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 표현은 하느님을 닮고자 하는, 언젠가는 하느님의 품에 가겠다는 조 시인의 내면 깊은 의식의 표출이 아닐까.

시 '북십자성'에서 조 시인은 '내 이 지상을 뜨는 날/은하철도를 타리/안드로메다행 999호 열차에 오르는/단 한 번 맞이하는 여행 앞에서/마음 몹시 부풀어 오르리/…'라고 노래하고 있다. 죽음을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깊은 사색만이 거둘 수 있는 구원의, 안식의 노래이다.

조 시인은 '나에게도/한 번쯤은/아름다운 마법이/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시인의 말을 남겼다. '아름다운 마법'이 무엇인지 코로나19가 사라질 때 그의 육성으로 직접 들을 날이 오길 기원한다.

〈기사 14면에서 받음〉

여근섭 동문은 '부둣가이야기' 등 자갈치 해변의 선박 등 부산의 정취를 잘 그려내는 작가로 알려져 있다. 여 동문은 총동창회관에 모교인 경남고 주변 산책길 그림 2점을 기증한 바 있다. 여 동문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전시회를 여는 등 창작 열정이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구 중앙동 부산우체국 뒷골목에 화실을 운영하면서 취미반 및 개인지도 등의 활동도 하고 있다. 동문들의 많은 방문과 관심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번 전시회 개관식은 지난 5월 3일 오후 열렸다. 총동창회에서 박종찬(25회) 고문, 현응열(29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 동문 미술인을 격려했다. 이날 박 고문은 작가에 금일봉을 전달하고, 동문 그림 몇 점에 '사랑의 빨간딱지'를 붙였다. 이후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도 전시장에 들러 동문 화가들을 격려하고. 그림 몇 점을 구입했다.

文化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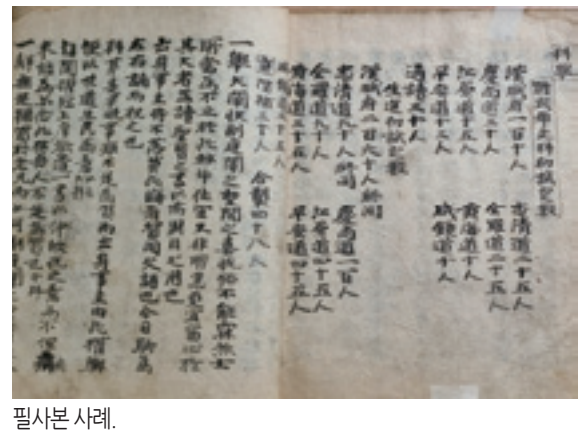
‘시간의 기억’ 쌓인 고서점, 실시간 유튜브 경매 ‘아이러니’

양수성(46회)의 古서적을 찾아서 ⑤

특정계층만 향유했던 책, 이젠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 진화
1945~1960년대 책 잔존 수량 적어 희귀 고서본 제법 많아

목판목 사례.

현존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


필사본 사례.

중국 은나라 시조인 성탕(成湯)은 당대의 재상이었던 이윤(伊尹)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윤은 이런 말을 하지요.

“사람이 매일 새롭고자 한다면 책을 보는 것이 그 길입니다. 매일 책을 보고, 매일 사유하고, 매일 현자와 의논한다면 그 왕은 저 태양처럼 새롭고 매일 새로우며 또 날마다 새로울 것입니다.”

탕왕은 재상 이윤의 말을 깊게 곱새깁니다.

그리고는 그 말에 크게 기뻐하며 그 충언을 잊지 않기 위해 그가 사용하는 구리 세숫대야에 새기도록 했습니다. 매일 세수할 때마다 그 글을 보면서 되새겼다고 합니다.

그 세숫대야에 새겨진 문장은 이렇습니다. '구 일신일일신우일신(苟 日新日日新又日新)'-진실로 해가 솟듯이 날마다 새로울 것이며 또 날마다 새로울 것이다.

저의 경남중 학창시절 ‘날로 새로워지자’가 교훈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그 의미를 잘 몰랐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그 글귀가 계속해서 나의 생활을 지배한 듯합니다.

최근에는 고서점과 그림을 취급하는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지만 새로운 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몇 년 전부터 성행하는 유튜브를 이용한 경매입니다. 실시간으로 방송 동영상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경매의 형태로 일반적으로 댓글로 입찰가를 써서 진행하는 경매입니다. 현재 많은 유튜브 경매 업체들이 있는 것을 보면 이제 특별한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매매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생각해 보면, 고서점의 형태가 제법 긴 시간 동안 있었지만 현대의 짧은 시간에 다양하게 생긴 것 역시 정말 재미있는 일입니다.

원래 옛날의 우리나라, 즉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는 책을 파는 곳, 서점이 따로 없었습니다. 워낙 책이 귀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특정 계층만 향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책이었습니다. 활자, 목판으로 찍었던 책들의 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일반 선비들은 그 책들을 베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일상다반사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활자 인쇄술은 고려시대에 간행된 상정고금예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보다 100년이 훨씬 지난 뒤 발행된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직지심경)조차도 세계 활자 인쇄기술의 역사에서 맨 처음 위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랑스러워 할 만한 우리의 문화입니다. 이보다 늦은 구텐베르크 인쇄술에 비하여 단점이 있었지요. 구텐베르크의 활자는 고가의 책들을 많이 발행하여 일반인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했지만 우리나라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활자본을 이용하여 왕실의 계획으로 책을 몇 부 만들면 지방의 감영 등지에서 그 활자본을 이용하여 목판을 만들어 찍어 냈습니다. 하지만 그 목판본조차도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고가이기도 했고, 왕실에서 개인이 책을 만드는 것을 금지를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널리 퍼지지 못했습니다.

물론 드물게 지체 높은 양반가나 향교 등에서 책을 만들어 내기도 했고, 절에서도 시주를 받아 목판을 만든 뒤 불경을 간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 암묵적으로 판매를 금지했기 때문에 역시 책은 서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지식의 보고였습니다.

그런 형태로 유지되다가 1800년대에는 방각본이라는 형태(1700년대 추정설도 있음)로 일반인에게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인의 계급으로 책을 만들어 판 이는 부자가 되기도 했지요. 또한 양반뿐만 아니라 의관 출신의 컬렉터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개화기를 지나 일제강점기에는 당시 조선인들이 만든 책방과 일본인들이 만든 출판사와 책방들이 전국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일반 서민들도 비록 일제치하였지만 다양한 문명을 접하게 되면서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지요. 일제강점기는 어찌 보면 고대와 근·현대를 잇는 가교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대에는 많은 자료들이 출판 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통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통계와 자료들을 바탕으로 많은 책들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조선인 역시 민족주의적, 계몽주의적 성향을 띤 책을 비롯하여 많은 책을 각계각층에서 발행하게 됩니다.

일본의 패방으로 인한 해방시기에는 일본의 인쇄기술이 철수를 합니다. 일본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하여 물자가 부족하기도 했지만 해방공간과 한국전쟁 직후까지는 그야말로 한국의 인쇄술은 최악의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책의 지질 및 인쇄상태가 정말 열악했지요. 그런 이유로 1945년에서 1960년 사이의 책 잔존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의 책으로 희귀 고서본이 제법 많은 편입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서민들이 책을 살 수도, 볼 수도 없었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인터넷으로 책을 살 수도, 볼 수도 있는 시대가 왔으니 그야말로 문명의 아이러니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더 아이러니 한 것은 불과 한 두 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곁에 두기도 힘들었던 활자의 문명이 지금은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습득하는 콘텐츠 때문에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어가고 있지요.

이사를 다니면서 책이 많이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책을 사는 또는 보는 시간이 불과 20년 전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물론 출판시장은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신문이 동남아에서 포장지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처럼 말이죠.

어쨌든 이러한 다양한 일들이 지나가고 있지만 옛날의 희귀한 고서들은 다행히도 아직 많은 이들이 찾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책도 먼 훗날 고서가 될지도, 영화 ‘워터 월드’에서처럼 종이 한 장이 엄청난 고가로 거래가 될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지금은 오래된 책이라 무조건 고가에 거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200년이 넘은 책도 1만원이 안 되는 책도 있는 경우도 허다하지요. 많은 이들이 찾고 있는 고서들이지만 그 고서들 중에서도 희귀하고 좋은 책은 더욱 더 희귀해지며, 그렇지 않은 고서들은 도태 되어 버려지는 경우까지도 있으니 아이러니의 연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책을 읽고 사유하며 현자와 이야기 하는 ‘일신우일신’은 현대에 있어서 책을 읽고 상상하며 소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머릿속에 있는 답답함과 구태의연함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며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 생각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보면 먼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에까지 인간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책, 독서가 아닐까 합니다.

“용마는 달린다” 덕형리그 개막식 거행

BPA 신항만구장…선수들도 마스크 착용하고 경기

“용마는 달려야 한다. 그래야 힘이 더욱 펄펄 난다. 비록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코로나19사태로 지난해 시즌 자체를 접어야 했던 경남중고 덕형리그가 다시 팡파르를 울렸다. 덕형리그는 지난 5월 8일 오후 진해 웅동의 부산항만공사(BPA) 신항만구장에서 개막식을 가졌다. 리그전 시작은 이미 지난 4월 10일 전개됐다. 개막식은 코로나19 추이를 감안, 뒤늦게 연 것이다. 개막식 행사뿐만 아니라 경기에서도 모든 참가자는 마스크를 꼈다.

덕형리그 개막식이 지난 5월 8일 진해 웅동 BPA 신항만구장에서 열렸다. 사진 아래는 경기 모습.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개막식은 지난 2019년 대회 우승팀 52회의 우승기 반환으로 시작됐다. 2020년 시즌 폐막식 때 반납하고, 우승팀에 가야 했던 우승기가 이제야 새 주인을 기다리게 됐다.

이문열(29회) 덕형리그 회장은 인사말에서 “어렵게 운동장을 구했다. 경기수를 대폭 줄이더라도 이렇게 운동장에서 달리고 던지고 치니 감개무량하다. 야구를 통해 동문들간 더욱 화합하고 우의를 다져 덕형리그와 총동창회 발전에 기여하자”면서 대회 기간 방역 수칙 준수와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은 격려사에서 “덕형리그 참가팀 중 최고참이 29회 동기로 적지 않은 나이이다. 유니폼을 입고 뛰는 모습이 대단해 보인다”면서 “덕형리그가 큰 단체이다. 이문열 회장의 훌륭한 리더십과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박종찬(25회) 전임 총동창회장의 열성으로 단단한 동문간 모임으로 발전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모두가 마음으로 다가가는 ‘열린 모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막식에 용마골프회 이종휘(32회) 회장이 참석, 행사를 축하하며 “두 동호단체 간 상호 교류를 통해 활성화를 도모해 가자”고 말했다.

이어 29회팀과 41회팀 간의 경기에 앞서 김 총동창회장의 시구가 있었다. 총동창회는 지원금 50만원을 전달했다. 이 용마골프회장은 격려금을 전했다.

총동창회와 경야회 집행부 간 상견례 모습.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자긍심 충만’ 경야회 새 집행부, 최선 다짐

경야회는 지난 5월 7일 집행부 모임을 총동창회관에서 가졌다. 전날 경남고 야구부에 물품 기부식을 가진 다음날이라 무척 고무된 분위기였다. 회원들이 힘을 합쳐 후배사랑의 기부를 실천했다는데 대한 자긍심이 충만했다.

이날 조용철(38회) 경야회 회장은 “경야회도 새 집행부를 구성하는 등 침체기를 벗어나 새 출발의 모습을 갖추었다. 총동창회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 자리서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은 “회원수가 상당한 경야회가 활성화된다면 총동창회에 큰 힘이 될 것이다. 경야회 새 집행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어제 경남고 야구부에 대한 ‘좋은 일(기부)’을 보니 든든하다”고 격려의 말을 했다.

이날 송승준(53회) 롯데 자이언츠 선수가 참석, 경야회 집행부의 무게감을 더했다. 총동창회는 이날 지원금 30만원을 전달했다.

“동창회보 광고 게재,
용마의 자랑이자 자긍심입니다”

경야회, “아우야 힘내!” 사랑의 기부

경남고 야구부에 1,114만원 물품 전달

경남고 야구부 출신 동문들 모임으로 지난 2019년 11월 집행부 세대교체로 거듭난 경야회가 후배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조용철(38회) 경야회 회장의 새 집행부가 회원을 대상으로 십시일반 모금해 모교 경남고 야구부에 1,114만원 상당의 야구용품을 기부했다. 지난 5월 6일 경남고 교장실에서 전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 경야회 조 회장, 정신(47회) 부회장, 김동주(51회) 사무국장과 경남고 백영선 교장과 전광렬(44회) 야구부 감독이 참석했다.

이번 기부에 대해 많은 동문들이 박수를 보내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경야회 조 회장은 이와 관련, “많이 부끄럽다. 언제나 후배들을 위해 힘이 될 수 있는 경야회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 진심으로 협조해준 경야회 회원이 고맙다”고 말했다.

◇경야회 야구용품 기부자=이충원(29회) 20만원, 조용철(38회) 50만원, 정용중(42회) 50만원, 이상현(43회) 10만원, 박중현(44회) 10만원, 서정민 10만원, 정신(이상 47회) 50만원, 유성한(48회) 30만원, 김홍수(49회) 50만원, 강봉규 10만원, 김동현 10만원, 김정현(이상 50회) 10만원, 김동주 50만원, 김영재 30만원, 이영화(이상 51회) 20만원, 김진수 20만원, 서정수 300만원, 이정민(이상 52회) 10만원, 김경찬 30만원, 김상욱 10만원, 송승준 110만원, 이상훈(이상 53회) 20만원, 강민영 10만원, 김태완 20만원, 서정호 50만원, 조정우 10만원(이상 54회), 이대호(55회) 100만원, 심세준(56회) 10만원, 김상록(59회) 10만원, 안상민 10만원, 이인승(이상 64회) 10만원

*경야모 100만원=김주현(58회) 김동석 차우용(이상 59회) 유영재 김현종 김현우 최규환(이상 60회) 김성환 김재용(이상 61회) 이재곤 김민성 박정찬 정규창(이상 62회) 강동호(63회) 이인승(64회)

*현역 프로선수 일동 160만원

경야회 집행부가 회원 모금으로 마련한 야구용품을 경남고 야구부에 전달했다.

경남고 제79주년 개교 기념식 거행

백영선 교장 “책임있고 떳떳한 학생” 당부

경남고 제79주년 개교기념식에서 백영선 교장이 방송실에서 기념식사를 하고 있다.

경남고는 지난 4월 30일 오후 제79주년 개교기념식을 거행하였다. 코로나19로 기념식은 방송으로 진행하였다. 2·3학년 학생들은 학급 교실에서, 1학년 학생들은 각 가정에서 구글클래스룸을 활용하여 참가하였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학교장 기념사, 총동창회장 축사(대독), 교가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백영선 경남고 교장은 기념사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산시민으로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고 떳떳한 학생”이 되어주길 강조했다.

총동창회에서는 기념품으로 학생은 개인용 방역물품 세트를, 교사는 우산을 전달했다. 재경동창회 하창우(27회) 회장이 기념수목을 보내왔다.

대입 전체 합격자 204명 집계

서울 및 수도권 20명, 부산지역 173명 진학

경남고 2020학년도 졸업생의 대학 진학 현황이 발표됐다(2021년 2월 합격자 기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는 고려대 2명, 중앙대 4명, 성균관대 2명, 경희대 3명 등 모두 20명이, 부산지역은 부산대16명, 부경대 15명, 동아대 41명, 한국해양대 10명 등 173명이 진학했다. 이밖에도 경북대 5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합격자는 204명으로 집계됐다.

3학년 등교수업 원칙, 1·2학년 격주 등교

경남고 코로나19 대응 방안

경남고는 교육부 및 교육청 지침에 따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2/3 등교를 지키고 있다. 3학년은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1, 2학년은 격주로 등교하며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등교 수업 시에는 방역 수칙에 따라 모든 교사 및 학생은 매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하고 있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이나 점심 및 쉬는 시간에도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으며, 교사들도 대면 접촉을 줄이기 위해 교직원회의 등을 원격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체험학습이나 체육대회 등은 2학기로 연기하거나 취소하였으며, 각종 대회나 특강 등은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고 야구부, 황금사자기 출전

총동창회, 격려금 전달

총동창회는 지난 6월 1일 오후 경남고를 방문, 제75회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하는 경남고 야구부선수단에 출전격려금 200만원을 전달하였다.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과 현응열(29회) 사무총장, 윤원욱(39회) 사무국장이 경남고 교장실에서 백영선 교장과 전광렬 (44회) 야구부 감독에게 격려금을 전했다.

총동창회는 제75회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하는 경남고 야구부선수단을 격려했다.〈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경남고 야구부는 6월 1일 개막한 이번 대회에 1차전은 부전승으로 올라갔으며, 5일 첫 시합을 치르게 됐다. 한편 경남고 야구부는 전반기 지역주말리그에서 수위를 차지했다.

경남중, 훈화 퀴즈와 오행시로 개교기념식

학생들과 소통…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 ‘쑥쑥’

경남중은 지난 4월 30일 이색적인 개교기념식을 가졌다. 코로나로 전교생 방송조례와 유튜브 동영상으로 비대면 진행했다. 김미정 교장은 학생들에게 학교 역사에 대한 퀴즈와 그에 대한 설명과 훈화를 곁들인 기념사를 했다. 학생들과 소통하며 학교에 대해 알아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한 기념식이었다는 평가이다.

김 교장의 첫 번째 훈화 퀴즈 내용은, △우리학교 개교연도는? △우리학교는 명문학교로 평준화 시기에 불려진 이름은? △훌륭한 선배들이 많습니다.…김영삼 대통령은 3회 졸업생인데 우리나라 몇 대 대통령일까요? △우리학교 교목은? △교훈은? 등 모두 10가지였다.

두 번째 훈화는 ‘경남중학교’란 제목의 오행시였다. 김 교장이 한 구절 읊으면 학생들은 함께 ‘네’라는 답을 하게 했다. ‘경남중학교’ 오행시를 소개한다.

경남중학교에 다니나? **(네!)**
남학교 중에서 최고가? **(네!)**
중학생 중에서도 최고가? (중도에서 포기하지마!!!) **(네!)**
학교에서 꿈과 끼를 키워 훌륭하게 성장하자! **(네!)**
교장선생님, 선생님, 부모님, 동창들과 힘을 합쳐 너희들을 잘 키워줄게~!! **(네!)**

경남중의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 정경.

경남중 학부모 교육과정 참여 사업

‘씨앗동아리’운영 활성화

경남중은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2021학년도 학부모 교육과정 참여 사업을 실시하였다.

경남중 학부모들로 이루어진‘학부모 씨앗동아리’에서는 첫 번째 사업으로 지난 4월 22일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학생들을 위해‘아름다운 교내 화단 가꾸기’활동을 하였으며, 두 번째 사업으로 5월 7일, 5월 12일‘손뜨개DIY를 통한 소통과 나눔’행사를 실시하였다.

화단 가꾸기 활동에서는 우리나라 토종꽃인 패랭이꽃을 학생들의 등굣길 화단에 심어 봄날의 아름다움과 풋풋함을 느끼게 하였다. 손뜨개DIY 활동에서는 참여한 학부모들이 손수 뜨개질한 카네이션을 만들어 스승의 날에 학교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시는 급식실 종사자분, 학교지킴이 선생님, 학교시설 관리 주무관님, 교내 청소관리 종사자분 들께 직접 전달하며 감사를 표하는 훈훈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5월 12일 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2021년 학교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도 열려‘사춘기 자녀와의 대화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경남중은 앞으로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 꾸준히 학부모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학부모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학교교육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

개교 79주년 기념품
총동창회가 모교 개교 79주년을 기념하며 제작한 기념품. 학생은 개인용 방역물품 세트(경중 450개, 경고 510개), 교사는 3단 우산(경중 60개, 경고 87개)이다. 우산은 교내 행정실 직원과 야구부 감독·코치 등에도 전달되었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동기회·동호회 및 직능단체

17회 산악회 = 기장 봉대산 산행

지난 5월 2일(일) 기장 대변 죽성 사거리에 집합, 맥도날드에서 커피 한잔씩 하고 봉대산 등정에 올랐다. 이날 산행은 지난 4월 18일 산행 후 대변 멸치회 시식 불발(전일 강풍으로 멸치잡이 배들이 출항을 못함)을 만회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기장 새찬양교회 뒤편 덕발골공원~봉대산 정산~월전마을 대변마을 삼거리 코스로 산행을 다녀왔다.

19회 재경산악회 = 북한천 산책

지난 5월 23일(일) 북한산성 입구~북한천변길~보리사~백운동 계곡~북문갈림길~쉼터~회귀~북한산성 먹걸이촌 옛골토성집 코스로 산행을 다녀왔다. 산행거리는 5.3 km, 최고점 330m, 전체 산책시간 2시간(휴식 약 20분 포함)이 소요됐다.

시원한 북한천 계류소리 들으며 산책을 즐기다가, 백운동 계곡길은 불규칙한 바윗돌멩이 투성이여서 힘들게 올라갔다. 대표선수 종선과 광호 둘이는 거의 원효봉(505m)까지 다녀왔다. 이날 산악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수고 많이 한 복춘 동기회장의 이임 회식을 가졌다.

참석자 : 복춘 인선 종선 상만 문환 유홍 문찬 정덕 철원 광호 순창

23회 동기회 = 골프모임

지난 4월 15일(목) 양산동원로얄CC에서 12명의 프로들이 3개조로 나누어 화이트티에서 라운딩을 즐겼다. 전용극 동기가 우승을 차지했다.

참석자 : 김동옥 김중광 원인건 유동헌 윤순현 이병찬 이상수 이영흔 전상대 전용극 정용호 최인식

28회 산우회 = 월례회

28산우회(회장 김정유)는 지난 5월 9일(일) 철쭉을 감상하려고 합천 황매산을 예정했다가 개화가 늦는

바람에 근교산으로 방향을 돌려서 대운산–불광산 코스를 택했다. 이날 산행은 강행군 당일코스였다.

참석자 : 김이청 김정유 박재훈 옥상곤 이인재 최연욱 허남식

33회 동기회 = 경고&부고 합동 전시회 관람

33회 동기회는 지난 5월 10일(월) 오후 6시경 경고&부고 합동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해운대 더 코르소 갤러리를 방문, 그림을 출품하고 있는 유영배(33회) 친구를 격려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43회 동기회 = 거제 칠천도 여행

43회 동기생들이 지난 5월 15(토)~16일(일) 1박2일로 거제 칠천도 황덕마을을 다녀왔다. 코로나19로 동기회 정기모임을 못하고 무심히 가는 봄날이 안타까워 의기투합하였다. 오락가락 봄비에다 바다안개 피어오른 풍경 속에서 먹고 마시고 노래하는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어서 동기회 모임이 개최되어 많은 친구들을 만나기를 기원했다.

참석자 : 김대영 이정열 이상필 이진배 윤성진 배진국 박승삼 김수민 김재범(47회)

45회 동기회 = 박종찬 고문 초대 골프모임

지난 4월 23일 정산CC에서 박종찬(25회) 총동창회 고문 초대로 45회 동기회장 김상수, 동기회 부회장 이광석, 최재근 동문이 모여 라운딩을 하였다. 박고문은 골프 입문 최재근 동문을 위해 스탠스부터 에이밍, 스윙까지 일일이 체크해주면서 라운딩을 함께 하였다.

54회 동기생, 하영일 은사 초청 오찬

54회 김영빈, 임길환, 정준섭 동기생 3명이 학창시절 은사이자 선배인 하영일(18회) 동문을 지난 5월 28일 낮 중앙동 모 식당으로 초청, 오찬을 마련했다. 이들 54회 동기생은 교직 은퇴 후 제주 서귀포에서 주로 거주하는 하 동문의 건강을 기원하며, 코로나19 극복 때 즐거운 재회의 시간을 가질 것을 기약했다.

55회 동기회 = 박종기 동문과 번개모임

지난 4월 1일(목) 서면 개미집에서 박종기(28회) 동문이 55회 후배들을 격려차 번개모임을 마련했다.

참석자 : 박종기(28회) 권세호 박기홍 이욱한 장지훈(55회)

29회 졸업 45+1주년 기념여행 기획
10월 초 강원도 일대 2박3일, 1박2일 두 코스

29회 동기회(회장 양승오)가 오는 10월 초 졸업기념여행을 떠난다. 'K29 45+1 졸업기념여행'이라 이름 지었다. 지난 졸업 40주년 기념행사가 너무 감격스러웠고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긴 게 불씨(?)였다. 50주년 때까지 못 기다리겠다면서 꺾이는 45주년 기념행사를 갖기로 했다. 더 젊었을 때 더 많은 추억을 쌓자는 의미이다. 지난해 세운 실행 계획이 코로나19로 불발되었다. 이제는 여행 가능한 세상이 왔으니 '45+1' 행사를 펼치는 것이다.

여행지는 강원도 일대이다. 여행일정을 10월 1~3일(2박3일)과 2~3일(1박2일) 두 가지로 잡았다. 개업의나 바쁜 친구들을 위한 배려이다.

미국 북가주지역 동창회 야유회 개최

미국 북가주지역 동창회는 지난 5월 27일 18명의 동문 가족이 참가한 1년 6개월 만의 동창회를 겸한 야유회를 다녀왔다. 이날 행사는 산호세지역에 있는 작은 공원에서 열렸다. 일행은 주문 도시락을 나누어 먹으면서 코로나19 등으로 그동안 만남의 기회를 갖지 못해 쌓였던 회포를 풀며 즐거운 우정의 시간을 보냈다. 이 소식은 조동훈(9회) 동문이 총동창회 사무국 카톡으로 알려왔다.

동기회·동호회 및 직능단체

동 정

박대동(23회) 고문, 삼성화재 ESG이사장

△박대동(23회·삼성화재 사외이사·전 국회의원) 총동창회 고문이 최근 삼성화재 ESG(환경사화지배구조) 위원장에 선임됐다.

정갑윤(23회) 동문, '좋은이웃…' 책 출간

△정갑윤(23회·전 국회부의장) 동문이 최근 100일 동안 울산 골목길을 누비면서 만난 소시민의 애환과 이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한 해법을 제시한 책 '좋은이웃 정갑윤입니다'를 출간했다.

김주학(27회) 동문, 법률사무소 개소

△김주학(27회) 동문이 지난 3월 통영서 김주학법률사무소를 개소했다. 지난 4월에는 통영적십자병원(병원장 조영철·49회) 법률자문변호사로 위촉되었다. 김 동문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부산지검고등검찰관, 상사중재인, 파산중재인, 법정관리인, 부산법대 로스쿨 겸임교수, 경성대 교수를 역임했다.

김부종(30회) 동문, AMF 회장 선출

△김부종(30회·동아대 경영학과 산학협력 교수) 동문이 최근 한국인 최초로 아시아마케팅연맹(AMF) 회장에 선출됐다. AMF는 아시아 17개국 마케팅협회의 상호 협력과 마케팅 발전을 위한 연합기구로, 1991년 'Asia Pacific Marketing Federation'(APMF) 이름으로 창설된 뒤 2007년 지금의 AMF로 명칭을 바꿨다. 임기는 2년이다.

김영문(37회) 동문, 한국동서발전 사장

△김영문(37회·전 관세청장) 동문이 지난 4월 26일 한국동서발전 제8대 신임 사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임기는 2024년 4월 25일까지 3년이다. 김 동문은 1992년 제34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20여 년 간 부산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법무부 등 검찰 요직을 역임했고, 2017년 관세청장에 취임했다.

권두성(38회) 동문, '부산카페쇼' 개최

△권두성(38회) 동문이 지난 4월 8~11일 벡스코에서 '부산카페쇼'를 개최했다. 권 동문은 총동창회 밴드에 모바일초대권을 올려 관심 있는 동문들을 무료 입장 초대를 했다.

손균효(40회), 장유 로타리클럽 회장

△손균효(40회) 동문이 6월 8일 오후 JW웨딩컨벤션센터김해에서 국제로타리 3722지구 김해장유 로타리클럽 제19대 회장에 취임했다.

강병규(43회) 동문, '대한민국주류대상' 수상

△강병규(43회) 동문이 제조 생산하는 막걸리 '생탁'이 최근 전국 600여 개 사의 경쟁을 뚫고 '대한민국주류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강 동문은 부산합동양조 장림제조장 대표이다. 대한민국주류대상은 국내에서 가장 크고 권위 있는 주류 대회로 알려져 있다. 강 동문은 '노사 합심'이 이번 수상의 원동력이었다고 말했다.

송대성(43회) 동문, 대통령 표창장

△송 대 성(43회) 동문이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대통령 표창장을 받았다. 송 동문은 사회복지법인 남해복지재단 대표이사로 남해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등 농·산·어촌지역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프로그램과 지역 특화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유승주(46회) 동문, 공무원노사협력관

△유승주(46회) 동문이 지난 4월 12일자로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국장급)으로 임명됐다. 유 동문은 서울대 독어교육과 학사, 미국 콜로라도대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43회로 2000년 공직에 임용됐다. 유 동문은 심사임용과장, 주스페인대사관 참사관, 기획재정담당관 등 지난 21년간 인사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15년 인사혁신처 대변인을 맡아 발군의 능력을 보여 '명대변인'으로 이름이 나 있다.

한자교습소 개원 최연욱(28회) 동문

부경대 전기제어계측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해 정년퇴직한 최연욱(28회) 동문이 한자(漢字)학원 '호연(浩然)교습소'를 최근 개원했다(해운대 벽산2차아파트상가 306호). 재직 중 전공과는 무관한 '한자한문 전문지도사 공인훈장1급' 자격을 취득한 최 동문은 학원 이름처럼 후진들이 크고 넓은 도덕적 용기를 갈고닦을 수 있도록 자신의 노후를 바치겠다는 각오이다.

서예에도 일가견이 있는 최 동문은 지난 4월 6일 부산일보사가 주최한 제41회 전국서도민전(書道民展) 행초서(行草書)부문에서 특선을 수상하기도 했다. 연락처 : 010-5618-1633

최연욱(28회) 동문이 개원한 한자학원 '호연(浩然)교습소'.

유재진(22회) 동문, 벤츠 전시장 증설

유재진(22회·부산스타자동차㈜ 회장) 총동창회 자문위원은 지난 5월 7일 기장군 소재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동부산점에 메르세데스-벤츠 전시장을 오픈하였다. 이날 오후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과 박종찬(25회) 고문, 김현태(30회)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9명의 집행위부회장, 현응열(29회) 사무총장 등 다수의 동문이 전시장을 방문, 개업을 축하했다.〈사진〉

"교차로 교통사고 획기적 감소 기대"
박봉구(29회) 동문, 스마트신호시스템 개발

박봉구(29회·ATL㈜ 대표) 총동창회 운영위원이 현 교통신호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발전시킨 '스마트신호시스템'을 개발해 세상에 내놓았다. 지난 5월 26~29일 부산벡스코 전시실에서 열린 '제10회 부산국제기계대전 BUTECH 2021'에 나온 '스마트신호시스템'은 교차로 교통사고 감소 및 교차로 상습정체 구간 해소, 연간 약 3천억원대의 화석연료 감소, 고령운전자들에 정확한 정보 제공 등 놀라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교차로 교통신호등의 잔여시간 표시이다. 이는 성급한 운전판단으로 인한 착오를 해소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감소 효과를 얻는다.

박 동문은 "'스마트신호시스템'은 교통사고 세계 수위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청산할 훌륭한 시스템이다. 현재 홍보가 덜 되었다. 지방정부 나아가 국책사업으로 이 시스템이 활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봉구(29회) 동문이 개발한 '스마트신호시스템'(사진 위). 박 동문이 현응열 사무총장에게 '스마트신호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요즘 어떻게?

〈10회〉
△**방일호** = 부인상. 5월 8일 분당 재생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황정조** = 형님상(둘째). 5월8일 부산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13회〉
△**이규채** = 빙모상. 5월 18일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17회〉
△**박가식** = 부인상. 5월 7일 부산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19회〉
△**계응찬** = 아들 형배군 4월 24일(토) 오전 11시 라플레이스 지하1층에서 결혼식. △**조기제** = 부친상. 4월 14일 부산동아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최상대** = 부인상. 4월 11일 구로성심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20회〉
△**양태윤** = 모친상. 5월 18일 남천장례식장에서 발인. △**최재완** = 클래식 음악 감상 해설서 '스토리가 있는 클래식과의 대화' 출간. △**천현주** = 빙모상. 5월 16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3호실에서 발인.

〈24회〉
△**권수찬** = 장녀 유경양 4월 25일(일) 오전 11시20분 서울 더파티움여의도 B1층 그랜드컨벤션홀에서 결혼식. △**박인호** = 삼녀 시윤양 5월 22일(토) 낮 12시 부산 한화리조트웨딩홀 B1층 몬테로소에서 결혼식. △**안병철** = 모친상. 4월 20일 시민장례식장에서 발인. △**안상수** = 4월 3일(토) 부영회계법인 이전. 부산 동구 중앙대로 260번길 7-5, 605호 (초량동, 항운회관빌딩). △**유홍석** = 빙모상. 4월 24일 부산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이상우** = 장남 승철군 5월 30일(일) 오후 1시 대전 호텔선샤인 웨딩홀 2층 컨벤션홀에서 결혼식. △**정영석** = 빙모상. 4월 8일 온종합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정영환** = 빙부상. 4월 3일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정용기** = 모친상. 4월 16일 (수) 서울 혜민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하재갑** = 빙모상. 4월 26일 양정동 수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27회〉
△**신대영** = 아들 현우군 5월 22일(토) 오전 11시 서울대 호암 교수회관에서 결혼식. △**정형찬** = 빙부상. 4월 9일 동아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28회〉
△**양종명** = 외동딸 인영양 5월 15일(토) 오후 4시 서울 더리버사이드호텔 콘서트홀에서 결혼식. △**엄호성** = 모친상. 5월 2일 강남 연세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채명재** = 장남 윤도군 5월 22일(토) 오후 1시 서울 더라움2층 마제스틱볼룸에서 결혼식.

〈29회〉
△**김 영** = 차남 남훈군 5월 22일(토) 오후 2시 화성컨벤션더힐에서 결혼식. △**노동욱** = 아들 민규군 5월 22일(토) 오전 11시30분 W웨딩국민연금 웨딩홀 3층 크리스탈홀에서 결혼식. △**문덕환** = 차녀 지영양 5월 5일(수) 낮 12시30분 헤리움웨딩홀 컨벤션홀에서 결혼식. △**문창견** = 차녀 현진양 5월 29일(토) 오후 2시40분 리베라 컨벤션 10층 아르덴하우스에서 결혼식. △**박성근** = 차녀 정민양 5월 30일(일) 오후 1시30분 경주 황룡원에서 결혼식. △**이상정** = 장남 영섭군 6월 5일(토) 오후 6시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결혼식. △**정승균** = 장녀 희정양 6월 5일(토) 오후 6시30분 더라움 폰드가든(3F)에서 결혼식. △**정이근** = 차남 재환군 4월 25일(일) 오후 2시30분 서울 보타닉 파크웨딩(B2층) 카라홀에서 결혼식. △**최원락** = 빙부상. 4월 7일 부산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30회〉
△**김종곤** = 빙모상. 4월 8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김현태** = 본인 사무실 소재 경성대 앞 센츄리빌딩(부산 남구 수영로 312, 21센츄리빌딩) 1507호를 임차하여 동기 쉼터로 제공. △**류창열** = 독자 지헌군 6월 13일(일) 오후 3시30분 센텀사이언스파크 웨딩홀 23층 더 스카이홀에서 결혼식. △**박재백** = 장남 순용군 센텀프리미어호텔 2층 웨딩홀에서 결혼식. △**장상헌** = 빙모상. 4월 8일 동래봉생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정병효** = 모친상. 5월 24일 부산 서호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정창림** = 장남 재영군 5월 8일(토) 오전 11시 서울 중림동 약현성당 본당에서 결혼식. △**천성일** = 부인상. 4월 28일 한중프라임 장례식장에서 발인. △**황규태** = 부친상. 4월 25일 부산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황문수** = 빙부상. 4월 18일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31회〉
△**김광식** = 모친상. 4월 27일 온종합병원장례식장에서 발인. △**김무홍** = 모친상. 3월 31일 시민장례식장에서 발인. △**김호성** = 장녀 진아양 3월 27일(토) 오후1시 벡스코 W웨딩홀에서 결혼. △**오용환** = 모친상. 5월 18일 메리놀병원장례식장에서 발인. △**윤병호** = 모친상. 5월 5일 용호동 성모병원장례식장에서 발인. △**전창수** = 장녀 희련양 5월 22일(토) 오후 2시 해운대 센텀프리미어호텔에서 결혼. △**정원규** = 장남 광식군 4월 10일(토) 오후 1시 범내골 라온웨딩홀에서 결혼. △**홍철민** = 장남 동관군 3월 27일(토) 오후 1시 초량 오페라프리마웨딩홀에서 결혼.

〈33회〉
△**박태종** = 빙부상. 3월 2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최홍원** = 모친상. 4월 10일 부산전문 장례식장에서 발인. △**황용수** = 빙부상. 5월 2일 고려대학교 안암 장례식장에서 발인. △**백홍문** = 차남 지용군 6월 6일(일) 낮 12시30분 울산 W 시티 컨벤션 별관 7F 그랜드 홀에서 결혼식.

부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최병국(10회)** = 2월 14일 작고 (미국 LA거주)
△**이장우(12회)** = 4월 20일 작고
△**김기성(13회)** = 5월 20일 작고
△**최 혁(13회)** = 5월 2일 작고
△**최광수(20회)** = 4월 18일 작고
△**박찬석(27회)** = 4월 18일 작고
△**김영규(30회)** = 5월 13일 작고
△**송영환(30회)** = 5월 2일 작고
△**이복근(35회)** = 5월 1일 작고

〈34회〉
△**강동효** = 딸 민정양 5월 15일(토) 오후 2시 라온웨딩홀 23층에서 결혼식. △**박재욱** = 빙부상. 5월 8일 상계백병원3호실에서 발인. △**윤동섭** = 빙부상. 6월3일 연세대학교 의료원 연세장례식장에서 발인. △**이준권** = 장녀 4월 3일(토) 오후 2시 아바니 센트럴 부산호텔 5층에서 결혼식. △**장경원** = 아들 4월 3일(토) 오후 3시 W웨딩 국민연금웨딩홀 1층에서 결혼식. △**조 선** = 부친상. 6월 3일 부산시민장례식장에서 발인.

〈37회〉
△**권혁상** = 부친상. 3월 26일 해운대백병원장례식장에서 발인. △**김종길** = 모친상. 4월11일 시민장례식장에서 발인.

〈41회〉
△**김종균** = 빙부상. 5월 6일 오산 한국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류지섭** = 부친상. 5월 15일 동아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문남진** = 모친상. 4월 18일 고신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여근섭** = Bama부산국제화랑 아프페어 참여. 4월8~11일 부산벡스코 갤러리미지 B-18. △**육욱성** = 모친상. 4월 13일 동아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이종민** = 빙부상. 4월 11일 부산전문장례식장에서 발인. △**최범호** = 모친상. 5월 8일 양산 서울요양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44회〉
△**김형준** = 서면 호일침한의원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 부산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유원골든타워 20층. tel. 1577-1775.

〈54회〉
△**조중완** = 4월 28일(수) 「야끼짱」 리뉴얼 오픈.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2번길 11. tel. 051-317-9555.

모교 80년사 자료 수집 공고

총동창회는 경남중고 80년사 편찬위원회(위원장 박종찬 총동창회 고문)를 지난해 8월 15일 출범시켰습니다. 2022년 4월 25일 발간을 목표로 모교 80년사 편찬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난관도 있습니다.

경남중고 모교에 보관된 자료를 정리해 본 결과, 많은 기간에 걸쳐 자료 부실 혹은 부재가 드러났습니다. 자료가 빈약하거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교 80년사 편찬은 경남중고의 역사책으로서 사상 처음 만드는 기념비적 과업입니다. 동문님들께서 개인 소장하고 계신 학창시절의 오랜 자료를 흔쾌히 보내주셔서 흩어진 역사를 연결하는데 도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복원작업이 진행 중인 경남고 덕형관(원형교사)에 조성될 '역사박물관'(가칭)에 전시될 것입니다.

1 자료의 종류 : 월보, 학보, 교무 행정서류, 사진, 전산자료, 교복, 모자, 단추, 명찰, 상장, 상패, 앨범, 동영상 자료 등 학창시절과 연관된 모든 물품
2 자료를 보내실 때 기수와 성함은 물론 간단한 설명 쪽지(날짜, 내용) 포함
3 보내주신 자료는 '착불'로 함(우송료는 편찬위원회 부담)
4 보내주실 곳 ● 우편 :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18 경남중고등학교 총동창회관 5층 모교 80년사 편찬위원회
● 이메일 : parkgyver2@naver.com
5 기간 : 2022년 2월까지

경남중고등학교 8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장 박 종 찬

2021년 기부금 보내주신 동문 명단(5/28일 기준)
(단위:만원)

번호	기수	성명	금액
1	6	오 영 은	100
2	37	이 수 환	10
3	55	이 욱 한	10

2021년도 회보구독료 납부자 명단

● 〈총 1,775명〉 (2021. 5. 28 기준)

경남중고동창회보는 여러분이 내주시는 구독료와 얼마 되지 않는 광고료 수입만으로 제작·우편발송 되고 있습니다.
2021년 구독료(연 3만원)를 내주시면 회보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내주시는 구독료, 큰 힘이 됩니다

[구독료 보내주실 계좌 안내]

부산은행 : 101-2074-0332-05

예금주 : 경남중고 총동창회 김대욱

(회보와 함께 보내드리는 지로용지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선납부자 명단(회보구독료)

6회 최갑영 2022년
8회 장혁표 2022년
11회 김광석 2024년, 김옥실 2022년
13회 박홍표 2022년, 안성문 2029년, 이경재 2030년
15회 윤상준 임영길 2022년
16회 문성환 2022년, 민신웅 2023년
18회 박기주 박석도 최재범 2022년, 홍우재 2024년
23회 박재호 2028년, 신언극 2022년
25회 김상수 김연석 김용범 이성웅 2022년, 임창운 2051년
26회 이상원 2030년
28회 안풍 2022년, 하재근 2028년
29회 김인술 2022년, 황유명 2023년
30회 강석철 2030년, 박정국 2022년, 박철우 2027년, 신교선 2025년
33회 최웅남 2030년
34회 이성엽 정하태 2022년
37회 서동욱 2024년, 이수환 2022년
38회 권두성 2029년, 정재형 2022년
46회 한영길 2022년
48회 김춘호 2023년
50회 박종현 2028년
51회 신현식 2029년
53회 황종민 2023년
54회 엄도용 2024년, 이찬희 2022년
69회 정민기 2023년

3회(4명)
송두호 윤태윤 이안규 하덕모

4회(6명)
김희수 박홍기 양종학 장수호 정순모 정치근

5회(8명)
김재관 김진휴 박장후 상기중 오배식 이문기 임성업 진도영

6회(12명)
김종철 박웅진 배종권 변영수 손용수 오영은 이희문 임경택 정건용 정덕환 정승화 최갑영

7회(14명)
김갑성 김삼현 김용우 김태배 노상석 박환배 배중현 송외득 오장은 윤용우 임성극 임의택 조덕찬 하근수

8회(16명)
김봉길 김재범 문창화 박재범 박희옥 안종열 엄덕량 이종택 이준혁 이춘기 이희순 장혁표 정금출 조봉석 최재혁 홍광수

9회(12명)
김기관 김 청 박영복 서해량 안규현 유병철 윤일명 장동근 전인규 정 록 지삼봉 한동대

10회(23명)
강희윤 김기호 김상규 김성규 김정학 박재경 박칠민 심영환 오강욱 이계창 이승영 이승준 이윤수 이재순 임정우 장기상 전영대 정상수 정종만 조길수 조종제 진 강 최병도

11회(44명)
강병희 강용대 공상기 권병용 김광석 김병기 김성규 김옥실 김용만 김용정 김윤택 김인섭 김태호 김학수 김항곤 박관호 박창순 박희태 서영호 서자윤 손봉길 심재룡 심재홍 양수택 오정광 유홍종 유흥수 윤태원 이강우 이균우 이상태 이재진 이종백 이태순 장세원 장영권 정석철 정운표 제정오 지창호 천금준 천동조 최득호 최창옥

12회(53명)
강본순 강창수 구진웅 권시길 김기인 김동열 김부생 김부환 김상렬 김영보 김영수 김우성 김장욱 김종련 김종일 김지회 문준화 박문기 박상도A 박영윤 박정윤 박호민 배기원 배병일 배종섭 변동만 서병기 손제준 심용치 안상직 안영배 엄태섭 오세정 윤학근 이규만 이상현 이수영 이승태 이영한 이원우 이현달 장동석 장일곤 정대식 정수복 정호중 조정제 조한기 조홍래 차민도 추영재 허은도 홍두표

13회(68명)
강종원 고송구 고시준 구문굉 권영계 권영채 권영환 김동호 김무조 김상치 김신부 김일수 김정균 김정일 김종의 김치득 김한규 남영기 문 창 박길만 박안남 박영주 박일웅 박정웅 박종탁 박홍표 배대결 배정운 서시주 서영웅 성정호 송신의 신동배 신 명 신민철 안성문 윤기갑 윤조웅 윤태호 이경재 이근모 이상문 이창성 이창열 이창호 이태랑 임소철 임영홍 장영길 정덕치 정로상 정영화 정은섭 정종현 제병민 조병성 조준탁 조철현 차영일 최상호 최성욱 최영완 최태환 추지석 한병조 허갑도 허 훈 황일인

14회(46명)
강주신 권 명 김도선 김동화 김무남 김재도 김창기 김 충 김태희 김형수 김화옥 노수덕 류총일 문운용 박남조 박만인 박병선 박중철 박청홍 배종현 백태우 신기석 신준호 유정호 윤영현 윤태규 이경우 이광언 이길미 이명재 이수남 이효근 이훈일 장삼식 조광명 조정현 진성태 최낙섭 최병태 최충락 하문수 한규환 한수길 허 증 황원재 황준성

15회(46명)
강민조 강부부 강창일 권승부 김경일 김소헌 김쌍열 김염훈 김옥규 김완식 김종태 김종한 김충식 김판열 남기주 남암순 박영무 박찬호 박효가 배 훈 손부홍 신용기 오봉석 윤상준 윤우경 이상호 이의일 이정부 이종수 이종희 임영길 장봉고 정석우 조영일 최광웅 최무길 최병우 최 욱 최원수 하영수 하정부 한진출 한해수 허경도 허종덕 홍익찬

16회(52명)
강상권 강영주 강종국 강진중 공명규 권명석 김광수 김광용 김두응 김박일 김상효 김일규 김정우 김정호 김 조 김종덕 김충길 문성환 민신웅 박두영 박종봉 배정희 설희순 성기식 성진호 손송방 송규정 송자문 안인환 엄종원 예광해 유영명 윤효주 이경환 이길홍 이무근 이방소 이성남 이양근 이영재 이종철 이청원 임승언 정우광 조길우 조원제 채경일 최정일 하주열 하희진 한일랑 황규호

17회(39명)
감정은 권경술 김길우 김길호 김동수 김동조 김상천 김용남 김준연 김중성 김지창 김창운 박가식 박신도 박인사 박재구 박흥식 송유근 송인문 신홍규 심문섭 어윤대 오충한 윤성욱 윤수성 이수원 이수창 이형우 임우택 임정수 장길성 장호남 전대홍 정두호 정량부 천융광 최성호 하영수 허진행

18회(52명)
갈영수 강영호 강인섭 고병헌 김경걸 김경권 김경화 김광웅 김귀언 김기섭 김만수 김사권 김성건 김재창 김종금 김종철 김지호 류종우 박건태 박기주 박대웅 박상욱 박석도 박영복 박 용 박용주 박용혁 박종구 박준성 박호영 서부원 서재봉 서종규 설현기 손찬규 안창범 우원호 윤봉수 임채영 전기준 전병희 전영석 정구홍 조성재 최 인 최재범 최진수 한기대 한기철 허만조 허성태 홍우재

19회(70명)
강동완 김경우 김경재 김규하 김덕규 김덕수 김명수 김배호 김봉호 김석윤 김성진 김영우 김영탁 김영태 김인선 김재근 김정우 김중우 김진국 김진호 김찬균 김철호 노덕현 노태규 박상식 박상택 박성철 서승성 선우일남 성낙출 성환진 손기태 손말현 손철수 신동인 안정모 오태수 유문환 윤수상 윤영규 이근식 이명환 이병구 이상우 이양환 이용조 이용흠 이장희 이종명 이창도 이창돈 이창윤 이창흠 이춘만 임채원 장성규 장홍의 전영석 정규병 정태을 조성환 조재윤 진수상 최상대 최화익 한명섭 함진복 허남걸 허홍욱 황태원

20회(43명)
강부덕 강석근 김두영 김성룡 김세준 김우흥 김원갑 김종민 김철영 김형오 남기석 목일진 문성채 문시영 민영기 박용덕 박 준 박지오 배준태 백완균 백창열 손춘수 심두수 안재상 오기현 유근준 윤병규 윤우성 이영오 임세호 장상배 장춘식 정세현 정승창 조영철 조윤태 최명호 최상인 최석립 최장하 최중경 허남균 허주한

21회(68명)
강민우 강수경 강순석 강영도 강욱형 강원태 강창수 강태순 공기화 구현수 김기현 김남규 김대웅 김동우 김영삼 김유건 김조영 김현태 김홍근 김황세 마상준 박명문 박명욱 박인협 박재선 박주용 배영일 배 일 변창섭 서덕수 서병문 성정근 신태윤 안상갑 안승원 안채식 양병주 여환부 오거돈 오태규 육화원 이문수 이성집 이익규 이재택 이재호 이 혁 임경범 임성출 전기환 전우성 정상인 정연호 조상호 조성근 조학래 조현국 진영천 최동완 최민석 최원종 최점수 최종린 탁원령 하영준 한대윤 허영도 허창수

22회(57명)
강상대 강호일 금명환 김광국 김도살 김동옥 김명수 김성재 김성태 김세곤 김승규 김원주 김일봉 김정곤 김정민 김진철 김학균 김해현 남백우 노평호 박규묘 박승목 박재구 박재상 박흥조 배병한 배춘식 변대석 변종호 부창전 손연모 심재복 안영수 유인조 윤동원 이윤제 이춘식 장무성 장성덕 장성복 장영근 정근화 정남식 정진식 정해진 조홍기 최광욱 최성열 최학봉 하성일 하현성 한군택 한태길 한형우 허범도 허승조 허인석

23회(46명)
감인홍 고용석 구영수 구자섭 김기열 김상태 김석헌 김영기 김익곤 김정록 김태용 김태홍 도명세 박기흥 박영호 박재호 배종순 백창영 서승환 송충송 신경재 신동규 신언극 안병율 오도준 유원형 유진무 윤길원 윤병조 윤태규 이기호 이병찬 이수백 이승호 이정욱 장백기 전명식 전영조 전재홍 정동일 정상건 정용호 최영목 최인식 하복진 한명경

24회(67명)
강동우 곽두희 권수찬 권해영 김경남 김경호 김도인 김도현 김동운 김만복 김명배 김무성 김승탁 김영만 김영민 김인구 김정신 김학성 김한군 김헌태 남진현 남창영 노상우 박극제 박윤성 박천호 박홍규 배종갑 변용준 서정대 서정득 손성호 안상수 안형수 여철우 원동희 윤석만 이대영 이동진 이명복 이상우 이 수 이영태 이재능 임민호 장세호 장현동 전대헌 전용우 정광윤 정명근 정영석 조영태 조용화 조재진 조현찬 주승환 주점권 진병건 차동렬 최동우 최현규 태창업 하 욱 하재갑 한상렬 황성훈

25회(107명)
강수명 고명식 구도근 구자훈 김광돈 김길수 김대헌 김동진 김문국 김상겸 김상수 김수국 김수석 김연석 김영수 김영호 김옥권 김옥철 김용경 김용범 김우형 김유환 김익수 김정학 김종국 김종윤 김종현 김진우 김창호 노태호 문재인 박건수 박경립 박굉용 박동건 박세철 박을영 박종기 박종찬 박진상 박홍기 배대관 백영건 서민상 서병수 서인진 서재규 서정욱 손기천 송동준 송영근 송영기 신경학 신성기 신성찬 안영복 안희석 양승욱 예종복 오양득 옥동훈 우진태 유용기 윤순기 윤태석 이계성 이근만 이대우 이동익 이명철 이상봉 이상화 이성웅 이신화 이우석 이인구 이창훈 이태근 이태식 이홍성 임영대 임창운 장세훈 전섭태 전영훈 정길영 정신배 정재봉 정철수 제영성 조경일 조대우 조병욱 조 익 조판제 좌상봉 차인환 최경호 최재환 최차호 최차환 최태동 태명산 한준석 한헌교 허만탁 허 택

26회(68명)
강수남 강영녕 강의규 고석훈 구영호 김광식 김기표 김두천 김민철 김영섭 김일광 김재용 김정무 김정원 김종우 김채영 김태년 김택영 김호용 민창현 박경수 박경재 박군석 박동조 박상호 박오옥 박원상 박원세 박의영 박재욱 백문현 서헌수 성백운 성재업 성재일 손영수 손욱호 심송택 왕정일 왕효석 윤승용 이경호 이광태 이명진 이상원 이성근 이순철 이양춘 이영학 이유상 이정곤 이주형 이창식 이희준 장만옥 정영륜 정익교 정재영 조만석 지용섭 최명해 최성락 최수일 최의수 하성봉 하원규 허진호 홍순하

27회(46명)
고창우 곽태홍 김강호 김광철 김근우 김명기 김병철 김병호 김상문 김안석 김영삼 김우진 김종욱 김진명 김학희 김호균 문두찬 문성기 박규욱 박춘규 박치호 반정열 배효택 변재국 서기룡 신한원 양태종 오봉인 윤종락 이민부 이성득 이요섭 이원호 이 헌 장인철 장창조 정남근 정두식 정재호 조봉관 천우태 최인성 최휴진 하창우 한상훈 한수길

28회(60명)
구영소 김대생 김만종 김상윤 김선경 김용석 김용섭 김익성 김인준 김준연 노영현 리신호 민교식 박병준 박성권 박영규 박종기 박진화 배효진 백영호 서기희 서정환 신중현 안재홍 안 풍 양동욱 엄보용 옥상곤 유봉수 윤경섭 이만수 이민우 이양훈 이원철 이종대 이종만 이종환 이홍오 임상규 임재덕 전선국 전진학 정두현 정백수 정영주A 정인식 정치영 정해영 조석태 주창석 최강호 최광해 최연삼 최연욱 하재근 한기웅 한명재 한봉석 허남식 황장두

29회(64명)
강대용 강성훈 권오영 금시환 김갑태 김기수A 김대영 김대욱 김병희 김부겸 김부근 김석윤 김 영 김영훈 김인술 김정규 김정암 김종권 김종명 김철오 박국인 박근우 박동일 박동흠 박명섭 박상길 박성근 박인평 박창언 박희규 사공운곤 서석철 서영학 손영보 송경문 신현수 안청홍 윤석희 이남중 이문열 이범익 이병건 이상용 이승훈 이정윤 이준환 이진욱 장현경 전장화 정 길 정성훈 조승제 조진수 조창열 차의수 최문성 최영식 최정만 하현태 한만수 현계성 현응열 황맹균 황유명

수시 기부 명칭 부여자 협찬 기여도 통계

협찬금은 사무국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만 통계에 넣습니다.

2021년 5월 28일 작성

다이아몬드	5억원이상	0명	2021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			

루비	3억원이상	0명	2021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			

사파이어	2억원이상	0명	2021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			

에메랄드	1억원이상	5명	2021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	11	오 완 수	1억원	
2	23	김 영 기	1억2300만원	
3	25	박 종 찬	1억4000만원	
4	30	최 우 철	1억700만원	
5	33	박 명 진	1억300만원	

플래티늄	5천만원이상	13명	2021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	13	이 경 재	5100만원	
2	16	송 규 정	5400만원	
3	17	최 만 식	5000만원	
4	18	김 길 제	5200만원	
5	19	이 부 성	5000만원	
6	22	유 재 진	6400만원	
7	24	박 홍 규	5000만원	
8	25	김 진 철	6400만원	
9	26	박 상 호	5050만원	
10	29	김 대 욱	6900만원	
11	30	윤 성 덕	6350만원	
12	37	허 부 남	5400만원	
13	38	권 두 성	7200만원	

골드	3천만원이상	22명	2021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	9	조동훈(미)	3056만원	
2	15	김 경 일	4000만원	
3	16	엄 종 원	3000만원	
4	19	이 용 흠	4150만원	
5	20	박 용 덕	3100만원	
6	21	손석보(미)	3064만원	
7	23	김 중 광	3100만원	
8	25	서 병 수	3000만원	
9	27	박 치 호	4000만원	
10	28	백 영 호	3200만원	
11	29	박 성 철	3500만원	
12	30	김 현 태	3250만원	
13	31	박 종 호	3350만원	
14	31	홍 성 수	3320만원	
15	33	김 법 영	4250만원	
16	35	장 인 화	3300만원	
17	36	박 진 용	3150만원	
18	38	정 재 형	3050만원	
19	39	박 근 태	3140만원	
20	40	우 영 환	3500만원	
21	44	탁 정 환	3400만원	
22	47	정 신	3210만원	

실버	1천만원이상	24명	2021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	3	송 두 호	1000만원	
2	8	박 동 렬	1000만원	
3	10	조 양 제	1000만원	
4	12	남 기 용	1000만원	
5	15	손 부 홍	1500만원	
6	15	천 신 일	2430만원	

실버	1천만원이상	24명	2021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7	15	한 해 수	1000만원	
8	17	이 세 복	1000만원	
9	17	최 성 호	1000만원	
10	19	황 태 원	1000만원	
11	20	김 형 오	1000만원	
12	20	허 규 판	1000만원	
13	21	강 창 수	1700만원	
14	21	전 재 호	1000만원	
15	22	김 학 균	1000만원	
16	22	박 재 상	2000만원	
17	22	장 성 덕	1000만원	
18	22	장 성 복	1000만원	
19	22	허 범 도	1000만원	
20	28	노 영 현	1400만원	
21	30	정 경 목	1000만원	
22	33	이 순 환	1000만원	
23	33	최 웅 남	1300만원	400만원
24	34	이 진 호	1250만원	

브론즈	5백만원이상	41명	2021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	8	김 봉 길	500만원	
2	17	김 동 수	500만원	
3	17	윤 성 욱	500만원	
4	17	조 증 언	500만원	
5	19	김 봉 호	600만원	
6	19	장 홍 의	600만원	
7	20	김 태 영	500만원	
8	20	박 병 철	500만원	
9	23	이 상 수	500만원	
10	25	김 익 수	700만원	

브론즈	5백만원이상	41명	2021년 협찬
No	기수	이 름	금액
11	25	박 세 철	530만원	
12	25	손 기 천	550만원	
13	25	송 정 규	550만원	
14	25	이 명 철	710만원	
15	26	김 상 현	500만원	
16	26	박 재 욱	500만원	
17	26	박 효 대	500만원	
18	26	하 원 규	500만원	
19	27	김 태 우	550만원	
20	27	문 두 찬	600만원	
21	28	구 영 소	500만원	
22	28	이 원 철	900만원	
23	28	최 강 호	500만원	
24	29	이 석 조	600만원	
25	30	김 해 곤	700만원	
26	30	윤 인 태	610만원	
27	30	이 명 건	530만원	
28	30	이 학 수	700만원	
29	30	허정택(미)	615만원	
30	31	남 기 태	700만원	
31	31	류 명 석	660만원	
32	31	오 민 일	600만원	
33	31	이 병 태	600만원	
34	31	정 철 수	500만원	
35	32	이 종 휘	710만원	
36	34	박 철 웅	500만원	
37	34	이 재 완	550만원	
38	39	백 기 현	810만원	
39	41	이 양 걸	800만원	
40	44	안 병 규	600만원	
41	64	표 종 빈	500만원	

30회(60명)
강석철 권용택 김경수 김기섭 김기수 김기업 김병기 김상직 김성복 김영일 김유기 김재일 김치영 김해곤 김현태 남영효 노동춘 박규완 박원호 박재백 박정국 박철우 서강태 서민석 서하수 석희원 신교선 신구균 신윤원 양문섭 오경태 옥유전 유재일 윤종순 은현수 이명건 이용우 이원용 이철호 이태봉 이한수 이환기 인준승 장석일 장호영 장훈상 정경목 정기룡 정성원 정순길 정승진 정영호 정태환 정해석 채영재 최우철 최욱 최진곤 최진권 황철민

31회(55명)
권해철 김시현 김영철 김정덕 김종규 김종호A 김형수 김효연 남기태 남철우 노성현 류명석 민종현 박경수 박석두 박인정 박종호 박춘열 박해성 박희암 배인환 서규영 손영태 손은정 신상하 신수열 신용필 심중식 안중수 오민일 오호철 옥치호 윤석중 이승원 장건호 장재훈 장정철 정무석 정용식 정용정 정원규 조성근 조영기 조현우 차인용 천장호 최부영 최상웅 최인목 최진섭 최해영 하명수 하병관 홍 구 홍성수

32회(31명)
김광기 김상범 김영길 김창범 류헌희 민길식 박상학 박성철 박우상 박원곤 박종구 박진원 배종찬 송기수 신국선 양문성 오경명 우득현 윤병조 이병훈 이상용 이성훈 이재수 이종휘 임인섭 임채균 장기호 정용운 정의주 최춘호 최호영

33회(39명)
공진환 김기산 김령환 김법영 김원일 김윤성 김재선 김종만 김종인 김태훈 김 혁 남경태 박명진 박성병 박창완 박태종 백수현 서광기 서재영 송성림 송종헌 신동천 안영훈 안찬모 예영찬 오항선 이동근 이석희 이윤조 이은우 이진우 이창훈 조덕환 조영학 주기훈 지창근 최영두 최웅남 황경원

34회(23명)
강승기 곽수균 김두섭 김범석 김상갑 김태하 노인선 박철웅 옥재명 이강희 이성엽 이용희 이준권 이진호 장현기 정노혁 정하태 조 선 조시형 진양호 최웅철 홍승철 황병주

35회(27명)
김관우 김기철 김길호 김동일 김우경 김우신 류인수 류철인 박동렬 박창제 서석권 성규원 손기철 손태섭 안종엽 안종일 오시영 윤종호 이복근 이성환 이원우 이종찬 이춘기 임주택 장인화 정효영 주귀홍

36회(40명)
공진식 권일복 김관용 김규선 김길호 김덕주 김병국 김영훈 김용진A 김용진B 김종백 김창일 김철원 박승근 박영찬 박진용 박철종 박형출 방진영 백태민 성귀호 신용덕 양호진 윤경준 이동희 이성호 이우수 이원석 이정영 이 창 이학수 이한호 임서룡 임창섭 정갑영 정병기 정윤희 지동섭 최재혁 한형식

37회(23명)
김기동 김영곤 김원범 김의렬 김종휘 김준오 김형기 노태건 문진형 문희영 박용진 서동욱 소수헌 유호섭 윤태훤 이수환 이호진 장원익 전인수 탁낙준 허부남 홍병일 황태윤

38회(30명)
강금성 곽동열 권두성 김경곤 김대훈 김문철 김상수 김원철 김현민 류인식 문익현 박이현 박준표 박태봉 방기대 신동훈 심 춘 안길수 오희진 윤경만 이수관 이창호 이태훈 정인철 정재형 조석태 조용철 주영록 차성철 한민득

39회(36명)
김대중 김병기 김종엽 김현진 노성수 문기호 박근태 박상환 박인석 박종국 박준곤 박해동 백기현 송영호 안영준 여동섭 유숙정 윤동배 윤원욱 이가용 이상학 이성태 이승기 이종욱 이종운 이철원 장동수 정순환 정용국 정우영 정진해 천용준 최보식 하성포 하순호 허종기

40회(26명)
강창지 고승성 권병서 김근영 김종철 김춘강 김학수 나수민 문태영 박무성 배병훈 서정민 손균효 심 철 안경진 옥진형 우영환 윤경학 이 기 이병완 이상백 이정삼 장갑구 장명재 한수열 황성수

41회(19명)
김신욱 김인수A 김정태 김형률 박동규 박상환 박정의 백창봉 안광근 이경호 이광희 이양걸 임병호 장윤호 조재붕 최영준 한정호 허종윤 황정후

42회(16명)
강인호 고장석 권영태 김광철 김동수 김재용 김태구 남화정 문지성 박동식 신동복 신봉준 정용중 정홍준 제정환 조명준

43회(19명)
강병규 김대영 김대훈 김동헌 김신헌 김종식 김진수 김태형 김희경 문영찬 박경곤 송대성 이상현 이용상 이진배 장병철 정효범 최용석 허재원

44회(16명)
김동욱 김성준 김찬홍 김해근 문형준 배봉건 우도균 윤상훈 윤철홍 이동렬 이창용 전광렬 조영호 조청현 탁정환 황인주

45회(6명)
김진수 김현호 박종호 이상현 최재근 하인수

46회(2명)
김동희 한영길

47회(11명)
감기환 강백중 고달우 김재성 성상용 손효준 오성진 이승택 정민호 정 신 정윤호

48회(7명)
권태현 김주현 김춘호 김충진 김태균 이동재 차원일

49회(3명)
이충현 장민건 최진영

50회(3명)
김유진 박종현 서석진

51회(11명)
구대서 구민석 김기호 김동주 김영권 박보순 박성주 반길호 신석진 신현식 이건영

52회(30명)
강영철 강재식 구순모 김민수 김민철 김성화 김용권 김지운 김현진 김형준 문성환 박상현 박선종 박정규 변의헌 변정환 심종배 양현승 유중갑 이경원 이도경 이세벽 이해곤 정길수 정상중 정현철 최형주 한중현 허근영 허홍만

53회(11명)
강덕천 곽상훈 김경찬 김광호 김권우 문희규 송승윤 이원준 전세일 한동인 황종민

54회(16명)
강치범 고강인 고지현 김승택 김영빈 남준현 박신우 손희원 엄도용 이재진 이재필 이찬희 장성민 정준섭 제재철 조중완

55회(8명)
권세호 박기흥 이욱한 이종원 이향림 장지훈 최범준 최성원

56회(1명) 손정현
58회(2명) 김현윤 정 혁
60회(1명) 이명휘
65회(1명) 이정조
66회(3명) 김덕형 김시준 성범석
67회(2명) 전명재 황유광
69회(1명) 정민기
78회(1명) 홍경민
79회(1명) 김민규

기수 & 이름 확인불명 3명

2021년 구독료 납부현황

2021년 5월 28일 현재

기수	발송부수	납부인원	납부율(%)
1	0	0	0%
2	0	0	0%
3	6	4	67%
4	7	6	86%
5	11	8	73%
6	20	12	60%
7	21	14	67%
8	25	16	64%
9	24	12	50%
10	42	23	55%
11	63	44	70%
12	77	53	69%
13	91	68	75%
14	68	46	68%
15	77	46	60%
16	86	52	60%
17	64	39	61%
18	91	52	57%
19	105	70	67%
20	68	43	63%
21	105	68	65%
22	98	57	58%
23	94	46	49%
24	115	67	58%
25	197	107	54%
26	108	68	63%
27	83	46	55%
28	90	60	67%
29	117	64	55%
30	115	60	52%
31	89	55	62%
32	46	31	67%
33	62	39	63%
34	37	23	62%
35	56	27	48%
36	65	40	62%
37	41	23	56%
38	45	30	67%
39	66	36	55%
40	97	26	27%
41	78	19	24%
42	50	16	32%
43	75	19	25%
44	63	16	25%
45	56	6	11%
46	46	2	4%
47	40	11	28%
48	13	7	54%
49	49	3	6%
50	70	3	4%
51	113	11	10%
52	141	30	21%
53	43	11	26%
54	91	16	18%
55	12	8	67%
56	10	1	10%
57이후	32	12	38%

총발송부수	3,654명
목표인원	4,000명
구독료납부인원	1,775명

성공의 시작은 정확한 **측정**부터 입니다

STech
www.stechs.co.kr

압축 공기. 가스, 증기 및 진공시스템의 누출은
생산가동 시간과 작업 최종결과에 해를 끼칩니다
ii900 정밀 음향카메라는 파이프라인, 절연체, 변압기,
스위치기어 또는 고전압 전력선등 어떤 것을
검사하더라도, 문제를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해상도 열화상카메라의 새로운 표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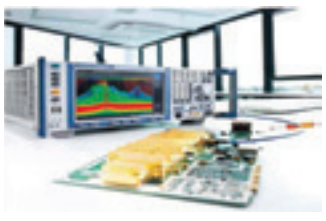
신뢰할 수 있는 검사를 위해 최신 기능과 정밀한 해상도를
제공하는 FLUKE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해 보십시오.
정밀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기대 이상의 가치, 정밀한
측정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분야별 전세계 점유율No.1

FLUKE. ROHDE&SCHWARZ Megger. GE

산업용 정밀 계측기기를 공급하는 ㈜에스테크널러지

R&D 분야



AC/DC Power Source, Electric LOAD
Digital Oscilloscope
Signal generator, Signal analyzer
Vector network analyzer
Frequency analyzer, Impedance analyzer

생산 및 공정관리분야

Handheld calibrator
Multimeter
Pressure tester
Temperature tester
Power analyzer

QC 및 유지보수분야

Precision thermometer, Thermo controller, Dry block
Precision pressure indicator, Pressure controller
Electric measurement standard
Reference multimeter
EMI receiver

시설 및 안전관리

Power meter
Handheld oscilloscope & signal analyzer
Thermal imaging camera, Sonic industrial imager
Industrial video scope
HVAC tester
Mobile tester

대표이사 : 김상수 (45회)
010-6382-7262

상담전화 : 051)329-7600 이메일 : stech71@hanmail.net